금주의 법구-〈법구경〉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이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은 하루만 못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4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97호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대중 '직선제' 선호 고민은 '지속 중'

추진위, 12일 종합 발표… 60.7% 직선제 찬성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사부대중공사 투표 결과

선출제도 문항	투표수(명)	지지율(%)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325	60.7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교구종회가 뽑는 종단쇄신위원회안	88	16.4
투표인단이 3인을 선출하고 종정이 추첨하는 염화미소법	50	9.3
출가대중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37	6.9
기타(추대제 등)	27	5.0
잘 모르겠다	8	1.5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대중들의 직선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공동위원장 도법)는 5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부대중공사에서의 현장 즉석투표 결과를 종합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중공사 참가자 10명 중 6명이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를 선호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4월 9일 대구 · 경북권역을 시작으로 대전 · 충청, 호남, 서울 · 경기 등 총 7번의 사부대중공사를 진행했다. 대중공사에서는 리모컨 현장투표로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선호를 물었으며 비구 · 비구니 411명, 재가신도 315명 등 총 726명이 참여했다.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현장투표에서 직선제 60.7%, 종단쇄신위원회안 16.4%, 염화미소법 9.3% 순으로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명선거 열망이 직선제 선호로 변환?

대중공사에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인식과 방향으로 금권선거와 흑색비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풍토 개선이 꼽혔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금권 · 과열 선거'를 문제로 지적하는 응답이 51.2%에 달했다. 담합과 야합이 20.3%, 사부대중 참여미흡은 14.9%, 참종권 제한은 10.9%였다.

직선제에 대한 높은 선호 이면에는 늘어난 유권자로 인해 그동안의 선거 병폐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기대감이 있다.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이 직선제 선호로 변환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경기지역 대중공사에서 A불자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성숙할 때 직선제는 여법하게 진행된다. 자칫 금권선거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종교다운 선출제도 고민 이어져

이와 함께 '종교다운 선출제도'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대중공사에서는 합의제, 추대제, 추첨제 등이 제시됐지만 직선제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로 인해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대전충청지역 대중공사에서 교구본사 주지 B스님은 "23번 선거를 했다. 계속 선거를 하면서 승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종회의원 C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세우고, 표몰이에 나서는

종정 추첨 '염화미소법' 9.3%뿐
18일 2차 중앙대중공사서 토론
6월 21일 임시종회에 상정 예정

모습이 과연 종교인다운 모습인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도 했다. 출마자 재산공개, 선거법 위반처벌 등 선거 자체가 불교 세속화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비구니 스님 참종권 확대는 과제로

지역별 대중공사에서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서의 우선가치로 '출가 승단의 평등한 참종권 확보'가 44%의 지지를 받았다. '금권선거 등 선거과열 방지'는 23%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보 인식이 컸음도 드러났다. 한편 대중공사는 5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 불광사서 2차 중앙대중공사를 열고 주제별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의 공은 6월 21일 예정인 중앙종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조계사는 연화장세계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만여 개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열렸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1만여 대중이 참석했다. 국적과 인종, 이념을 떠나 봉축을 위해 참석한 이웃종교인, 정치인, 외국인 등은 연화장세계를 연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 전국 2만여 사찰서 법요식

진제 종정 스님 "온갖 병통 치유의 길은 참나 깨닫는 것"
조계사 봉축법요식, 정관계등 사부대중 1만여명 참석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전국 2만여 곳의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열렸다. 특히 이날 조계사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헌양, 헌다에 이어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국악인 남상일, 체조선수 양학선이 선정됐다. 특히 헌화 의식에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생명경시와 물질 숭배를 중시여기는 이 깊은 병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일념삼매에 들어 참나를 깨닫는 것"이라며 "우주만유의 본질인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의 원리를 자각해 일체중생의 비애와 고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實相)을 현실세계서 수용해 대자유해탈(大自由解脫)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봉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이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법요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마음속 연등으로 불을 밝히고 지혜광명으로 우리 사회를 자비와 소망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발원문도 발표됐다. 이기흥 회장은 "거룩하신 부처님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애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웃종교들도 봉축 메시지 잇달아 전해

로마 교황청 · NCCK 등 '자비' 강조

5월 14일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많은 이웃종교에서도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불자들에게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로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루이토랑 추기경)는 "이날은 붓다의 탄생과 대각, 입멸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과 국가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길 빈다"고 기원했다. 이어 "우리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받아 이 글을 쓴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도선언을 통해 불자들은 환경 악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인간의 탐욕, 불안, 오만, 무지로 표현되는 자아위기가 있다는 공통인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져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원한다"며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자비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울려 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수정 추기경



김영주 목사

김 영 주 한 국 기 독 교 교 회 협 의 회(NCCK) 총무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밝히셨다"며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시기다.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아픔 속에 처한 이웃을 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희 천도교 교령은 "예부터 불국토를 자부해온 우리나라의 만사, 만물, 만인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선한 용기와 은혜로운 자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은 "부처님의 큰 덕이 온 누리에 펼쳐져 통일과 평화가 앞당겨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2見 평온 초대장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일으키는 번뇌와 수시로 변하는 마음과
식(識)의 종자가 일으키는 알음알이와
업(業)의 얽힘과 파장이 출렁거려서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병과 재액을 일으켰다는 사실조차
업에 가려져서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함은 고통의 연속이요
깨달음은 화택을 여읜 평온이다.

이 평온은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며

온갖 천상계의 복락과 법열을 누리며
평온축제에 출입할 수 있는
석가세존의 불가사의한 지혜 초대장이
될 것이다.

〈석가를 품은 53見〉저자
화엄경 강원/강주
眞歸
두손모음

“자비 정신으로 성역화 불사 원만성취”

종정 진제 스님, 종단 성역화불사기금 2억원 쾌척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총본산 성역화 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아름다운동행은 5월 11일 “종정 진제 스님이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아름다운동행에 총본산성역화불사기금으로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2011년 이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에 빠지지 않고 기부를 하고 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온 누리에 가득해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역화 불사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불사가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계한 기념관과 불교문화 체험관 등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25일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서울시, ‘강남 라데팡스’ 개발 재고해야”

법응 스님, 5월 9일 기자회견… 서울시에 질의 공문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포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를 개발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일명 ‘한국판 라데팡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개발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포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응 스님은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에서 △철학과 테마가 부재 △현대차 GBC에 지나친 배려 △지질 등 건조물의 안전 △역사와 인문 가치 부재 △교통안 증대, 미래성 부재로 원점서 재검토 필요 등 5개항의 문제를 질의했다.

스님은 “서울시가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까지 코엑스~삼성역~현대차GBC 구간에 복합환승센터와 지하도시를 개발하는 ‘한국판 라데팡스’ 사업 추진을 밝혔다”면서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40년간 조성됐다. 지하에 지하도로, 지하철, 국철, 고속철도 등 18개 교통노선과 주차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구상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콩코드광장-상제리제-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에 놓여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1천년 역사의 봉은사를 지척에 두고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계획을 폐기하고 별도의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사업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지하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법응 스님에 따르면 강북과 달리 강남의 지하 기반암은

‘佛라데팡스’ 설립기간만 40년
한국은 5년여 만에 ‘졸속행정’
강남 지질 ‘연암’ 안전도 위험
지하 51m 오염원 정화 어떻게?
역사성 · 문화 가치 찾기 어려워

‘연암(Soft Rock)’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뤄진 강남 개발에서도 대규모의 매립이 이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하 6층 구조의 세계 유례없는 환승센터 개발은 여러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지하 내 사고나 화재 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게 법응 스님의 비판이다.

법응 스님은 “지하 51m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을 중력을 무시하고 자연적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지하 6층의 공간에서 하루 수십만명이 내뿜는 독소와 기차 · 버스 · 각종 설비의 내연기관이 생산하는 오염물질,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수증기에 대한 처리를 다순히 오픈된 공간 계획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사업대상지 주변의 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현대 GBC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가 발생하며 지하 6층 규모라고 해도 주변 일대 혼잡은 자명하다”면서 “결국 현대GBC 건설 진행에 병행하려는 임기응변식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없는 단순 토건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1970~80년대 ‘산업화시대’로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법응 스님은 “서울시가 강남 지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한류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문 · 역사가 가미돼야 한다”면서 “본 사업에서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공간은 봉은사 일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응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5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송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동자승 “종교 넘은 평화를” 조계사 동자승들이 5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을 방문, 이슬람교 유치원 아이들과 사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자승들의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 방문은 11일 진행된 프린스 술탄 이슬람학교 학생들의 조계사 방문에 대한 답례다. 동자승들은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배소를 견학하는 등 이슬람교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공덕 저금통’으로 탄자니아에 法香을

아름다운동행 · 봉은사, 보리가람高 기금 마련 위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12일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마련 모금함’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 설치했다.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보리가람학교는 불교계 최초로 탄자니아 경제수도인 다르에스살람에 건립된다. 이에 따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봉은사는 ‘공덕 쌓는 저금통’ 1호를 경내에 설치해 적극적인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봉은사 사회국장 원창 스님은 “종단에서 최초로 탄자니아에 학교를 건립하는 데 봉은사도 함께하고자 동참하게 됐다. 특히 개교가 얼마 남지 않아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봉은사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십시일반으로 동참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봉은사를 시작으로 ‘공덕 쌓는 저금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캠페인으로 모연된 기금은 보리가람학교 책걸상, 컴퓨터, 농기계 등 기자재 구입에 사용된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김종규 이사장 전국신도회장에 임명

종정 도용 스님, 5일 임명장 전달
부회장엔 공영식 가이아 대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前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이 천태종 전국신도회장에 임명됐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5일 서울 관문사서 전국신도회장에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부회장엔 공영식 가이아에너지 대표를 각각 내정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취임식 일정은 향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김종규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교시를 통해 “전국신도회의 위상에 걸맞게 신도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용 스님은 “천태종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 10명이 1명에 매달려 가르치고 키운다. 필요하면 1000명이 1명에 매달려 인재를 양성할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 열반대재에 전국의 신도들이 모두 참석하니 그때 신도들에게 회장으로서 공식인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규 전국신도회장은 “스님들은 세수와 법랍이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갓 출가하면 1살 짜리가 되는 것”이라며 “신도로서 그간 활동했지만, 막상 소임을 맡고 보니 천태종에서는 이제 1살짜리 신도가 된 것 같다. 배우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3년 임기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도들을 잘 이끌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 전달식에는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감사원장 용암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김한곤 천태종 대외협력단장, 김수웅 관문사 신도회장 등이 배석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문화재 장물 은닉한 사립박물관장 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5월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해 검찰 및 피고인 권모씨 측에서 각각 상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피고인 측에서 무죄를 주장한 문화재 은닉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은닉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보관 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은 “2심에서 불법 ‘은닉’ 행위가 유죄로 선고됐다. 이는 문화재의 불법 ‘은닉’을 유죄로 규정한 거의 최초의 판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산회상도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종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무송

원로위원 석종인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혜령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법인이사 석체법 석일두 석성만 석성우 석경만 석현공 석청우 석문공 감 사 석선화. 석성덕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현공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덕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울산중앙종무원장 석법운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용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법수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법정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문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혜림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대구부장 성호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법인운영이사
청강. 도명. 일현. 청암. 혜천. 의공. 법수. 성덕. 혜화. 학산. 법광. 자운. 혜림. 혜명. 이화진. 김원석. 김연우. 이혜경. 이미희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근대 조명·불교경전… 봄 학술대회 '풍성'

불교 및 종교 관련 학회들이 5월 일제히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주제도 동아시아 근대 불교에 대한 조명부터 불교 전적, 종교교육 등 다양하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동아시아 근대 불교에 대한 연구들이다. 불교학연구회는 오는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 불교의 근대성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김성연(동국대)의 '1910년대 불교계의 근대화론과 종교성' △김종진(동국대)의 '1930년대 불교지와 문학場' △정혜정(원광대)의 '지눌 마음수행의 역사적 변용' △우동필(전남대)의 '니까야로 본 중론의 십이연기' 등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경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김상일(동국대), 김정훈(경기대), 이종수(순천대), 탁효정(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근대 동아시아 불교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5월 28일 위덕대 본관 4층 대회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진(동국대)의 '중국 근대의 불전 수입과 불서 편찬의 시대성' △이태승(위덕대)의 '일본근대 불교가 이노우에 엔로우의 활불설에 대해' △김원명(한국외국어대)의 '한국 근현대 불교학의 과제와 전망' △조명제(신라대)의 '동아시아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등이 발표된다.

불교학연구회
한일 불교 근대성 모색
근대화론과 종교성 주목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한중일 불교 근대 조명
韓불교학 전망 등 발제

주요 토론자로는 김영덕(위덕대), 원영상(원광대), 윤종갑(동아대), 석길암(동국대)교수가 나선다.

동국대 박물관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별 전시회인 '여시아문-깨달음의 길'과 연계되는 학술대회로 한국과 일본의 불교전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일의 불교전적'을 주제로 5월 2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 학자 5명이 발제자로 나선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원효〈이장의〉 현료-은밀문의 사상사적 검토'를,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국불교 경전의 결집과 간행'을, 미야자키 겐지(宮崎健司) 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교수가 '일본의 대장경사'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또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분황 원효의 〈십문화쟁론〉과 〈판비량론〉내용과 사상적 의의'를 주제로 고찰하며 미키 아키마루(三木彰圓) 오타니대 교수가 '친란의 〈현정토진실교행증문류〉에 있어서 불전의 수용'에 대해 발제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 박물관은 오는 6월 10일까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여시아문(如是我聞)-깨달음의 길'을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오타니 대학(大谷大學) 박물관의 협조로 이뤄지며, 팔만대장경 인출본 중 가장 오래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0(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10)〉 등이 전시된다.

동국대 박물관
'한일 불교전적' 주제로
원효 등 주석서들 분석

종교교육학회
현 교육과정 內 종교 논의
각 종교교육별 과제 살펴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5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708호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병철(한국학중앙연구원)의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방향-2015 종교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귀성(원광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학교과 교육의 쟁점과 과제'가 총론격으로 발표된다.

이어 종교별로는 이송곤(前 동국대 강사)씨가 '듀이의 종교관 측면에서 본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발표하고, 개신교·가톨릭·통일교·유교 등 각 종교별 교육 현황과 과제를 살핀다.

최준규 한국종교교육학회장은 "2015년 9월 고시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종교학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학교의 종교교육이 나아갈 개념적·실천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완주 송광사, 사찰음식 체험관 '사운당' 낙성

5월 9일, 총 예산 13억원 소요



경내에 건립된 체험관 전경 모습.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5월 9일 경내에 사찰음식체험관과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준공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사운당(四雲堂)으로 명명된 사찰음식체험관은 정면 9칸, 측면 3칸에 578㎡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후 8개월 만이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팔달사 회주 혜광 스님, 한광수 송광사 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운당은 살아 움직이는 활기

사운당, 정면 9칸 측면 3칸 578㎡
사찰음식 우수성 포교 중심 역할

차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의 밥상, 나눔의 밥상, 평등의 밥상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은 법어에서 "사운당 건립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불국토를 이룩하자는 뜻이 담겨있다"며 "미혹하며 깨달았다고 하는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마음 광명은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도 "마음 씀씀이에 따라 즐거움도 괴로움도 생길 수 있다"며 "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사운당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듯이 사해의 청풍납자와 단월들이 운집해 대승의 법요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예산은 불교문화사업단 보조금 4억 원과 전라북도 2억 원, 완주군 2억 원, 자부담 5억 원 등 총 13억 원이 소요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금연캠프 연다

참가비 무료 6월 10일, 7월 1일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금연의지가 있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의 무료 금연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금연으로 빛나는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금연캠프는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10~11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민 각 2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금연 템플스테이는 교수(전문의), 간호사, 금연상담사 등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금연 및 건강 관련 특강과 니코틴의존도 평가, 1대1 금연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기본프로그램인 발우공양, 예불, 108배, 포행, 참선도 진행된다.

금연캠프 템플스테이 수료 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를 연계해 6개월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한다. 또 6개월 금연성공 시 성공기념품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나 캠프기간에는 교육 목적 및 장소특성상 절대 금연해야 하며 캠프 수료 후 2주 이내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 (063)561-1375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생명살림 가르침 'LED연등'으로 실천

불교계, 친환경 실천위해 도심 2만개 연등 교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시내 사찰과 주요거리가 봉축연등으로 빛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서울도심 가로연등 2만개 중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세종로, 종로, 북촌, 을지로지역의 1만개를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각 사찰 역시 약 1만여개의 연등을 LED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국대 정각원의 경우 동국대 내 1500개의 연등을 LED로 설치했으며,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에는 300여 개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연등을 설치했다.

동국대 정각원 관계자는 "2014년 동국대 108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태양광 연등을 설치 한 이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지만 일산캠퍼스에 이번에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사찰 중 성불사, 소림사, 열린선원, 행불선원 등은 기존 백열전구 등(10W)에서 LED전구(3W)로 교체했다. 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사동 일대의 건물도 내·외벽 연등장식을 LED전구로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살림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올해 LED연등으로 모두 바꾼 후 전기 절약과 발열 감소 등을 체감하고 있다"며

봉축위 1만개, 각 사찰 1만개
"전기 절약 및 발열 감소 체감"
東大 불교대 총동창회 적극 홍보

"연등불빛도 이전보다 더욱 밝은 듯하다. 생명살림을 통해 부처님이 오신 참의미를 살린 듯 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에너지 절약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5년부터 에너지절약 및 원전 폐지 홍보를 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가 그 주인공이다.



청계천 등축제 모습.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연등으로 설치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서울시와 함께 5월 11일부터 청계천 광통교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원전 하나줄이기 및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부스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김석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이 기간 청계천 등축제를 하기에 LED연등과 연관해 에너지 절약을 설명하고 있다. LED로 교체하면 전체 소비전력이 70% 감소한다. 불자들과 시민들이 동참하여 백열전구만 LED전구로 바꿔도 원전 1개를 줄일 수 있다"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점심, 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이 높다. 불교계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음속 피는 꽃이 당신의 부처님입니다"
댓잎의 속삭임, 차 한잔의 기쁨, 5월의 명상…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띄운 맑고 섬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마음 꽃을 줍다 4색
덕조 스님 글·사진 | 232쪽 | 12,900원 | 올컬러

생각이 단순하면 마음이 깊어진다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겸허한 향기로 풀어내는 기도의 단상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가 읽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좋습니다. 이해인 수녀

덕조 스님 | 법정 스님의 맏상좌. 법정 스님께서 머무시던 불일암에 살며 수행하고 있다. 송광사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대만에서 계율학을 공부했다. 전 서울 길상사 주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평화롭고 명쾌한 지혜의 방편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달는다 화제의 도서
백창우 | 212쪽 | 13,000원 | 양장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선생이 안내하는 연기법 수행의 요체 연기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연기법 이론부터 연기맵 그리기, 수행 중 마주치는 경계에 대한 질문과 대답, 먼저 수행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마음공부의 어려움으로 방향을 잃은 당신을 위한 가장 쉽고 실질적인 수행법.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안내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 800쪽 | 28,000원 | 양장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김영사

일 주 문



부산대 한방병원 무료 진료

경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은 5월 14일 경내 휴휴정사에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제16교구 신도회장 추대식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5월 6일 경내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16교구 신도회장 추대식'을 봉행했다.



강화 연등축제

범우 강화연등축제봉행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5월 7일 강화군 강화읍 문예회관에서 '강화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제 3차 정기이사회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5월 28일 오후 4시 대전역 인근 태화장에서 '불기2560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언론사불자회 정기법회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5월 19일 서울 홍우빌딩 10층 여의도포교원에서 5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군법당 자비의 선물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5월 10일 군법당 자비의 선물 3020세트를 전국 13개 군부대에 전달했다.

"신심과 원력으로 불법 홍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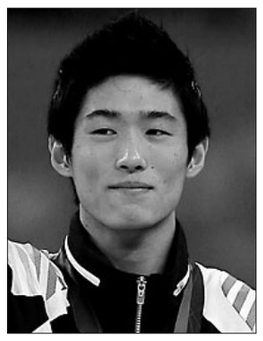
2016불자대상 수상자
허영범 · 남상일 · 양학선



허영범 경찰청장



남상일 명창



양학선 체조선수

불법 홍포에 공헌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조계종 불자대상에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남상일 명창, 양학선 체조선수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4일 불자대상 선정회의를 열고 허영범 경찰청장, 남상일 명창, 양학선 체조선수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14일 봉축법요식에서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허영범 대구경찰청장은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공직에 임하여 많은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불자대상을 수상한 허 청장은 현재 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으로 경찰 조직 내 신행활동과 불자조직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인제 · 서울혜화경찰서장, 대구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제26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허 청장은 특히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성보 48점을 환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 2014년 문화재 도난사고 방지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의 업무협약 체결에도 참여해 불교문화재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공로로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3년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허영범 성보 환수 · 도난방지

남상일 불교문화 알리기 앞장

양학선 중앙신도회 홍보 나서

남상일 명창은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며 다양한 방송과 공연활동을 하는 국악계 대표 불자로, 국악 대중화는 물론 불교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초등학생 시절 완주 위봉사 스님들을 따라 사찰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남 명창은 동희 스님에게 나비춤과 바라춤 등 불교전통의식도 배웠다.

남 명창은 불교계 방송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불교계 각종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명예홍보대사, 사단법인 자비명상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불교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등을 수상했다.

양학선 선수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교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 선수는 고3 시절 출전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체조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 사상 최연소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52년 만에 남자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양 선수는 2011년 대한체조협회 최우수 체조 선수상을, 2012년에 대한민국 인재상 등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성캠프로 중2병 고쳐요"
(사)자비명상, 굴암사서 청소년 인성캠프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은 5월 7~8일 안성 굴암사에서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캠프 'EGG깨뜨림'을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중학생의 발달심리상태를 기반으로 상호 협동과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총 14간 동안 진행됐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동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달구벌에 울려 퍼진 음성공양
제15회 대구경북불교연합합창단 한마당축제



대구경북불교연합합창단(총재 효광)은 5월 6일 대구 중동교 신천둔치에서 '제15회 대구경북불교연합합창단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합창제에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선법합창단 외 총 18개 불교합창단이 10개 팀으로 출연해 창작 찬불가와 가요를 선보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환자분들의 쾌유 기원해요"
동국대분당한방병원, 봉축 맞아 선물 나눠



동국대분당한방병원(병원장 김근우)은 5월 13일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떡을 선물했다. 병원 불자회인 연우회가 준비한 떡과 손수 만든 연꽃을 입원환자 및 내원객에게 나누며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되새기고 환자의 건강을 기원했다. 윤호섭 기자



동행 탄자니아 지부장에 진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2일 탄자니아 지부장으로 진공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큰 원력을 세워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는 만큼 열심히 잘 진행해 나가라"며 "아프리카에 가서는 스님의 활동모습이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포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바르고 제대로 된 활동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공 스님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포교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진공 스님은 2000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이다. 노덕현 기자

하남 청운사, 베트남 가정 법회 봉행
청운 스님 "언제든지 마음의 고통 내려놓길"

하남 청운사(회주 청운)는 5월 8일 청운사 법당에서 베트남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베트남 호치민 황법사 주지 틱쩐팅 스님을 비롯해 틱땀희, 틱땀드엉, 틱땀꾹 스님들과 150여 베트남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운사 신도들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날 청운사 회주 청운 스님은 "외롭고 힘들때 마다 언제든지 청운사에 와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고, 희망을 가져가길 바란다"며 "하남시에는 베트남 불자들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번에 초청에 응해준 베트남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수영구노인福, 곰솔 한마음축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윤기혁)은 5월 11일 관내에서 '제7회 곰솔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곰솔 한마음축제는 효 사상을 고취하고, 저소득 조손가정 청소년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나눔의 장이다. 이날 수영구복지관은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청소년들에게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쳤다. 또한 카네이션 전달식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400여 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기혁 관장은 "가정의달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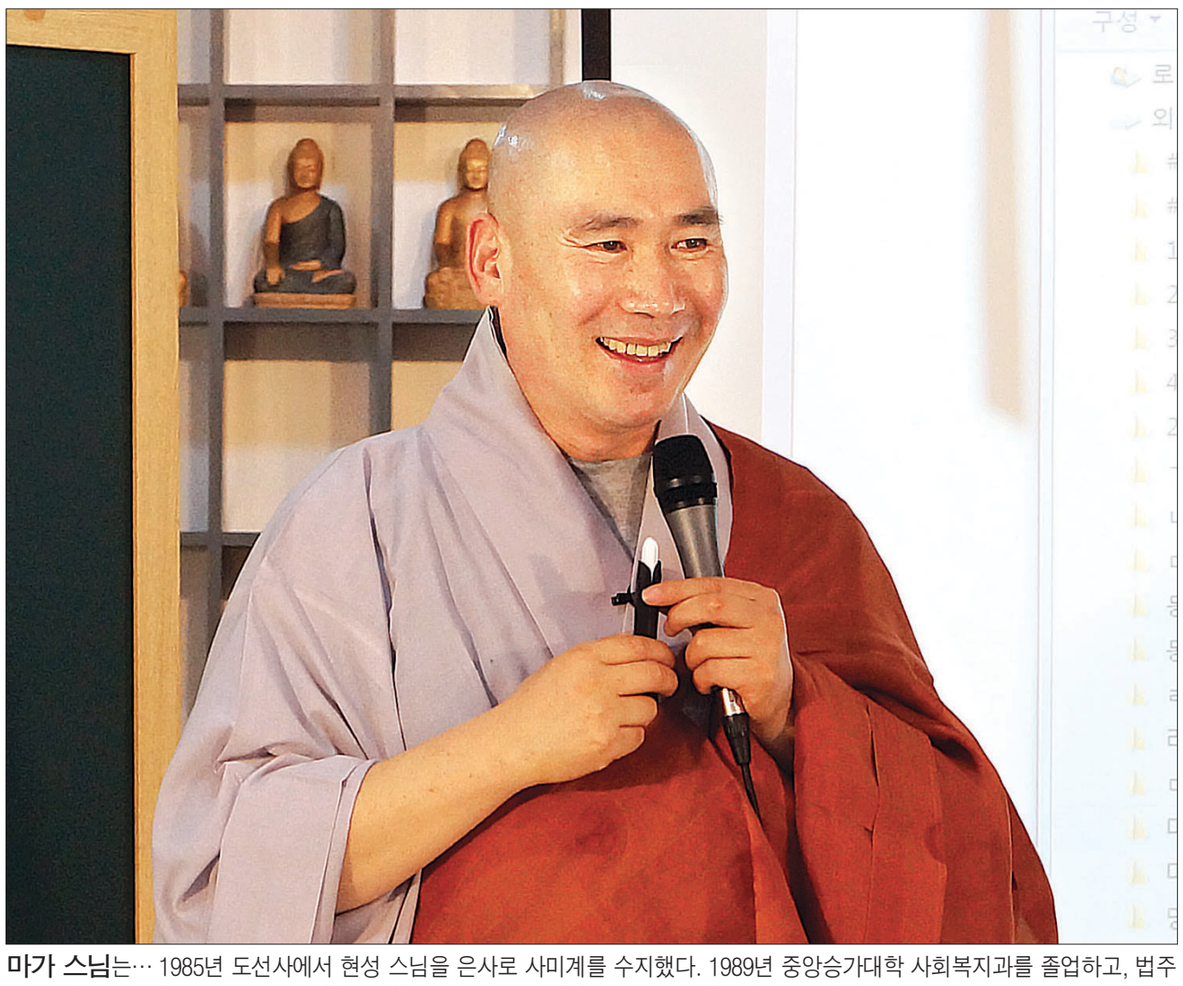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한국사회에 ‘힐링(healing)’ 열풍이 불어 닥친 지도 몇 년이 흘렀다. 힐링은 어느새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았고, 상처 받은 이들을 위로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힐링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반증이다. 왜 점점 아파져만 가는 걸까? 발전하는 문명 아래 상처만 늘어가는 사람들. 힐링멘토로 잘 알려진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5월 2일 참불선원 인문학 대강좌 첫 주자로 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은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고민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마가 스님는… 1985년 도선사에서 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89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법주사 · 복천암 선방을 시작으로 5안거를 성만했다. 2003~2011 중앙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와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내 안에서 찾는 붓다〉 〈내 마음 바라보기〉 〈고마워요 자비명상〉 〈알고 보면 괜찮은〉 등이 있다.

21세기 한국사회는 기술집약산업이 말도 못하게 발전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21세기 들어서 더 많은 아픔을 겪고, 더 많은 갈등을 빚어내고, 더 많은 자살과 이혼이 생겼습니다. 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공허가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인간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현대인들은 과학이 밝혀내는 것만 믿지 뜬구름 잡는 소리는 믿지 않습니다. 21세기 종교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고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됐을 때 믿고 따라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맺히고, 팥 심으면 팥이 맺힌다는 연기법을 과학으로 증명한 것이 불교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 지금의 마음을 입꼬리에 뒤보세요. 그리고 내 입꼬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보세요. 다음으로 한번 미소를 머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분은 어떤지 바라보세요. 이것을 미소자각이라고 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면 마음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플럼빌리지 틱낫한 스님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기도 하죠.

행복을 위한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행복해지고,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컵에 담긴 물’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물 반 컵을 보고 “에이, 반밖에 없네”라는 반응과 “와, 그래도 반이나 남았네”라는 반응. 이 물은 감사하든 안 하든 반 잔의 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움직이는 내 마음을 늘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제대로 명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개의 일생을 아시나요? 저 작은 솔개도 40년을 살면 날개는 축 처져서 날기가 힘들고, 부리는 휘어져 음식을 먹기 힘들어집니다. 발톱도 낡아 사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이때 솔개는 죽을 각오로 바위산에 올라 부리를 쪼아 깨버리고, 발톱과 깃털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와 발톱, 깃털이 돋아나 또 다시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만 버리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다는 것을 한 가지 찾아보세요.

자존심, 미워하는 마음, 사치, 욕심 등 참 많겠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부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구걸입니다. 기도와 구걸을 꼭 구분하세요.

우리는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닦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과연 행복을 위한 것인지 불행을 위한 것인지, 또 나의 말과 생각은 행복을 위한 것인지 불행을 위한 것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행동과 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있으면 됩니다.

제 눈에 안경

안경에 때가 껴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즉 안경 닦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 눈에 안경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죠. 명상은 그런 판단을 하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 센 놈”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고집 센 놈이다’ 고 자신를 들여다보세요. 이를 회광반조(回光返照)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 지금의 나를 보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모습, 음성,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잣대를 갖고 재봅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고 마음만 내죠. 번뇌망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마음의 노예’라고 하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행복 위해 身口意 삼업 닦고
남 향한 화살 자신에게 돌려
항상 깨어 있으려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 나에게 찾아온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해”라고 주문합니다. 근데 수행은 그런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만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요. 하지만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성제(四聖諦)입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이 고집멸도를 설명하려고 8만4천가지 방편을 쓰셨습니다. 왜 괴로운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도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즉 고집을 버려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해우소에 가면 입칙오주(入厠五呪)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데요. ‘버리고 또 버리니 아니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탐진치도 이와 같이 버려서 행복해지자는 겁니다. 우리는 똥은 버릴 줄 알아도 똥고집은 버릴 줄 몰라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건 아버지도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틀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워낙 잘생긴 탓에 다른 여자가 스카우트 해갔어요.(웃음) 아버지 없이 태어나니까 속에 울분이 쌓이더군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안 좋게만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눈에 안경’이 된 거죠. 이런 저에게 주변 사람들은 너나 잘하라고 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과 ‘그럴 수 없어’라는 마음은 극락과 지옥만큼 차이가 큽니다.

당신의 역할은

저에게는 스님 배역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소화하고 있나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여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뉩니다.

〈옥야경〉과 〈선생경〉에는 아내의 역할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며느리와 같은 아내, 종과 같은 아내, 원수와 같은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등 7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연꽃이 왜 불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연꽃은 더러움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내 가정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 순간 나의 행동은 주인의 자격에 어울리는지도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져간다고요.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과 따뜻하게 손 한번 잡으면 1억 원어치 복이 되고, 나 몰라라 나만 위해 산다면 1억 원어치를 까먹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못사는 집 사람이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세월호 참사에서도 선장이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갔죠. 그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고해에 빠져 있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외치는 불자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늘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 꼬집는 걸 많이 했습니다. 칭찬보다 비난하는 일이 많고요.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안아줍니다. 우리는 두 손과 두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작은 아바타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 자비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안아주세요.

불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무량대복(無量大福)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늘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영암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수산
감찰2국장: 금산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권소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사업부

총괄원장 : 이창훈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사업부 : 대덕화

▣전국신도회

남신도회장: 설주성
여신도회장: 김춘자
수석부회장: 윤근
신도회장단: 김생수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영천불교연합, 봉축법요 · 연등행렬

사부대중 3000명 동참



영천불교연합회(회장 태관)는 5월 7일 영천금호강변 분수광장에서 불기 2560년 '봉축법요식 및 연등행렬'을 거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 태관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웃에 따뜻한 마음 베푸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 값진 불공이다. 참다운 불공으로 모두를 이익 되게 하고 행복으로 안내하자"고 당부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연꽃처럼 불자들이 스스로 지계를 청정케 하고 등을 밝혀 중생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사찰별 문화행사 부스와 축하공연에 이어 삼귀의, 봉행사, 축사, 법어, 발원문, 감사패 전달, 축가, 점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천불교연합회는 선화여고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양 올림으로 봉축 기념"

한일불교 여성부, 만발공양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공양 올리는 것으로 봉축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가 열렸다.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시민들을 위한 무차만발공양으로 축하했다.〈사진〉 5월 8일 연등으로 가득한 송상현광장에서는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총장 향운 스님(원효종 총무원장) 및 백명숙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사부대중 100여 명이 일반시민과 불자들에게 비빔밥과 여러 다식을 전했다.

5월 1일과 8일 이틀 동안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원들이 나눈 비빔밥은 총 3200인분이다. 또한 1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무차만발공양의 공양을 대접받은 시민들의 수는 올해까지 총 3만 그릇에 달한다.

무차만발공양은 백명숙 회장이 2000년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부 회장을 역임할 당시 범어사 벽파 스님의 권유로 고려시대 진행했던 무차만발공양을 재현하기 위해 부산역에서 시작한 것이 시초다.

백명숙 회장은 "봉축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한 것을 드시고 함께 기뻐해주셔서 행복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심정으로 마련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봉축을 기념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재가자 위한 하안거 21일 입재

조계종 부산연합회, 홍법사서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재가자들을 위한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에 들어간다. 하안거 기간은 5월 21일~8월 17일이며 입재식은 5월 19일 오후 2시 홍법사에서 개최된다.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한 불자들에겐 안거증이 발행되며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수행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해 108배에 이어 2부에서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환영사, 청법가, 회장 수진 스님의 법문, 발원문, 축가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거기간 동안 실천 수행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재가불자들에게 맞는 수행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시민들에게 '茶禪一如'의 삶 보여주다

5월 7일, 제11회 부산다도문화축제 성료

부산차인연합회 27주년 기념해
차문화 · 정신 알리는 자리 마련
독좌시연 · 찻자리 등 공연 다채
2000여 사부대중 다도체험 즐겨



부산차인연합회(회장 보혜)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며 '제11회 부산다도문화축제'를 5월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301호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기장경찰서 경찰들의 독좌시연.

부산차인연합회(회장 보혜)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며 부산 차인과 시민들을 위한 '제11회 부산다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부산차인연합회는 부산 차인들의 화합을 아우르며 다선일여의 삶과 차 정신을 전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차문화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부산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고 차 정신을 통한 포교에도 앞장서며 격조 높은 차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월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301호에는 맑은 차향이 가득 퍼졌다. 차인들의 정갈한 다도 동작과 천연염색으로 곱게 물들인 한복, 다화가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는 금당차문화회, 김해문화원, 다연회, 숙우회, 소소차행법회 등 여러 다회에서 준비한 찻 자리와 시화전, 다도구전, 전각전 등 다채로운 전시회가 마련됐다. 또한 다포그림 퍼포먼스, 차나무심기, 매듭공예 등 체험전도 준비돼 차를 접한 적이 없는 일반인도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부산다도문화축제 개회식은 개회선언으로 문을 열어 회장 보혜 스님의 인사말, 부산차인문화상 및 공로상 시상, 내빈 축사,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문화상은 최해룡 부산차인연합회 부회장, 공로상은 기장 경찰서다도문화대학장 정오 스님이 받았다.

이어진 무대시연에서는 △숙우회차행법 소속의 가야사 숙우회 △일본차 시연 △기장경찰서 다도문화대학 독좌시연 △금당차문화회 지회 명선 다도원 오심치람 찻자리 △한국다도대학원 부산 본원 정립접빈 가루차 △김해 문화원(다향회) 일속암 선비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독좌를 시연한 참가자들은 기장경찰서 경찰들로 지난해 12월 29일 창립된 기장경찰서 다도문화대학 소속이다. 경찰다운 절도 있는 다도 동작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회장 보혜 스님은 "온화한 차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덕을 배우고 인간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순화시킴을 의미한다"며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고 깨끗한 차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차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차인연합회 고문 정여 스님은 "오늘 열리는 다도문화축제는 이 지역 대표 전통문화축제이다"며 "차 문화 행사가 날로 발전하고 차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소박한 삶을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차인연합회는 1989년 금당 최규옹 선생, 원광 스님, 성파 스님 등 당시 다도계의 거목들이 모여 창립했다. 이후 한일 차문화교류 및 부산 시민을 위한 차 잔치 한마당, 충렬사 신년헌다, 부산국제다도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차문화를 이끌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부산차인연합회 고문 정여 스님, 부산차인연합회장 보혜 스님, 기장다도문화대학장 정오 스님, 김대철 한국차문화회장, 윤상직 기장군 국회의원 당선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원효대사 一心 · 和諍 되새기다

원효종 · 분황사, 원효 1330주기 대재



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5월 6일 경주시 충효동 총무원에서 '원효보살 133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5월 6일 경주시 충효동 총무원에서 '원효보살 133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하고, 원효 스님의 일심(一心)과 화쟁(和諍) 사상을 기렸다.

열반대재는 바라작법, 헌화, 봉행사, 추모사, 행장보고, 발원문, 법어 권공 및 영반, 분향, 종도대회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창해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태일 스님, 자문위원장 금봉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오직 망념에 의해 일체 경계의 차별이 있으며,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니 마음을 여의면 곧 육진의 경계가 없다"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설명한 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원로원장 창해 스님은 "원효보살님의 열반일을 맞아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의 미혹과 죄악의 장막을 걷어내고,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추모사를 했다.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은 위대한 깨달음의 일체를 중생에게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한없이 깊고 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힘닿는 대로 보여주었으니 이 공덕 되돌려 법성같이 중생계 끝까지 이롭게 하리라"는 부처님의 의도행을 발원하는 법문을 했다.

한편 경주 분황사(주지 성요)는 5월 5일 '1330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재'를 경내에서 봉행했다. 분황사 주지 성요 스님은 "원효성사 제향대재를 맞아 성사님의 숨결이 어린 분황사에서 다시 한 번 위대한 사상과 높은 가르침을 되새기며, 미혹과 죄악의 장막을 걷어내 불국정토를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원효성사의 대중교화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민족의 지침이 되어 온 일여평등 사상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원효성사 열반일을 맞아 배타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두의 염원이 성취되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열린불교아카데미, 〈선요〉 법석 초대

5월 23일~9월 26일간

열린불교아카데미(원장 김윤희)가 〈선요〉로 새롭게 문을 연다.

열린불교아카데미는 지난 4월 처음 문을 연 법석 〈원각경〉과 2기 〈대승기신론〉에 이어 세 번째 강의로 〈선요〉를 마련했다.

〈선요〉는 중국 남송 말기 선풍을 진작시킨 고봉원묘선사의 법문집이다.

강의는 5월 23일~9월 26일 매주 월요일 7시이며,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원순 스님이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조계종 편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 중이다.

특히 스님은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 〈치문〉 〈중론〉 〈명추회요〉 〈법보장경〉 등 여러 경전 해설서를 통해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1) 244-0263 **하성미 기자**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어려운 일에는 '정면돌파'가 해답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㊽ 신통력에 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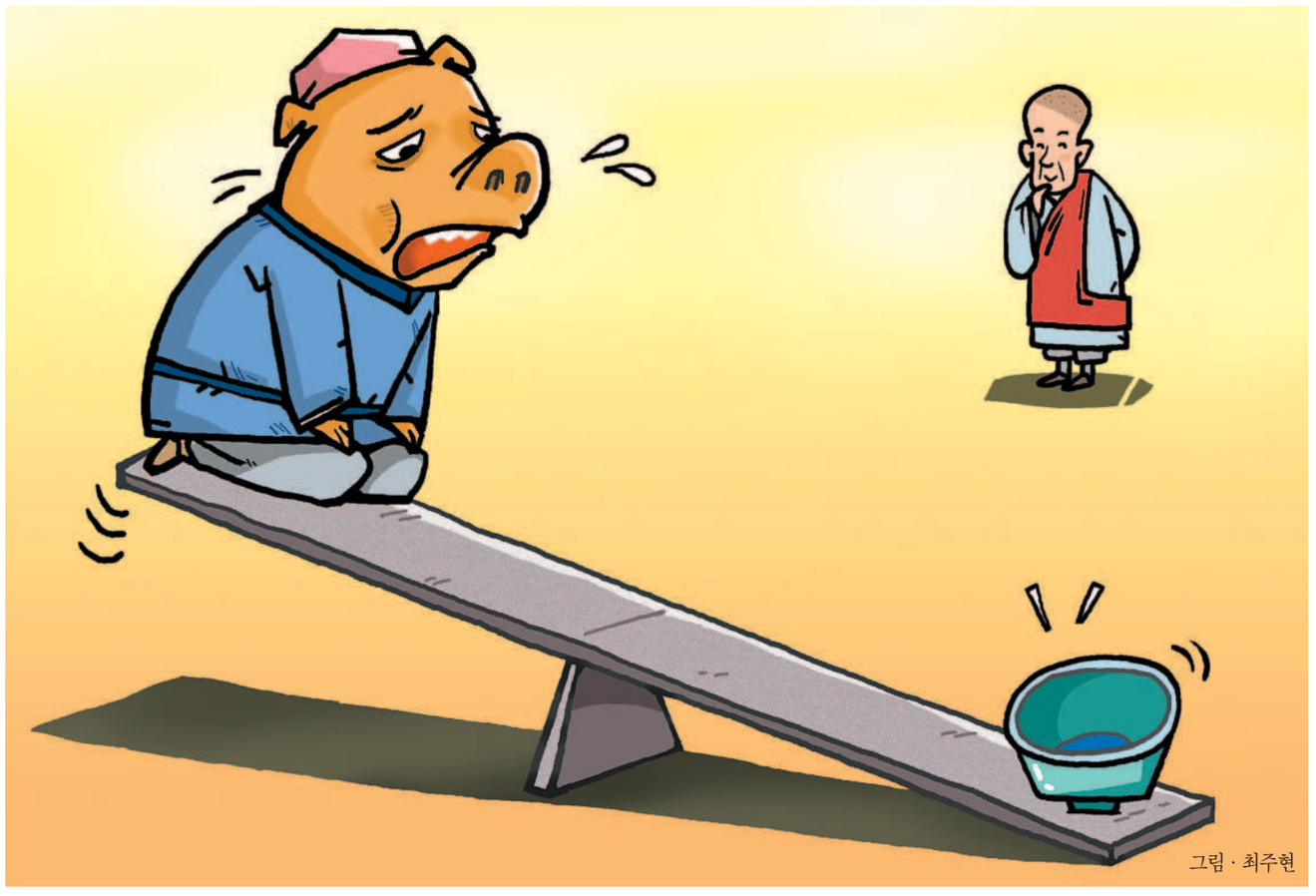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힘 이야기를 했으니 좀 더 해보기로 하지요.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점에서, 힘의 추구는 끝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세게…하는 길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처럼 궁극적 완성을 추구하는 길과 힘을 추구하는 길은 애당초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지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열반' 이나 '해탈' 은 무위법(無爲法)이라 말하고 상대적 크기가 있고, 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유위법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위법의 세계에는 차별이 있을 뿐 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떤 힘의 추구와 도의 완성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통력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스님은 이러이러한 신통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더라"든가, "어떤 도사가 이런 초능력을 발휘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높고도 위대한 경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그것은 구별되어야 하지요. 신통력을 지닌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물론 깨달은 분들, 또는 그 궁극적 완성에 가까이 간 분들이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삼명(三明), 육통(六通)이라 하는 신통력이 삼매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요.

흠, 나칠계님…. 하실 말씀이 있다구요? 왜 '결코' 라는 강한 표현을 쓰느냐구요? 신통력을 가지려는 것이 뭐 나쁠 게 있느냐구요? 애구…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나쁠 것은 없다구요. '결코' 라는 말을 쓴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다를 뿐 어떤 물질적인 도구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이나 신통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이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다 같이 괴로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탐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칠계님, 그런 것을 탐내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는 힘이야말로 최고의 신통력이라는 마음 자세로 나가세요. 그런 자세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자연 신통의 힘도 얻으실지 누가 알겠어요? 나칠계님도 가능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초를 치시는 것도 나칠계님의 대단한 신통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칠계님이 오랫동안 쌓아 오신 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방향만 트시면 큰 성취를 이루시며 또한 부수적으로 대단한 신통도 얻으실 겁니다요. 하하.

어허라? 저는 약간 그 동안 당한 복수를 하려는 생각도 있어 약간 비꼬아 한 말인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 나칠계님…. 주변들 돌아보시면 "내 신통력 어때?"하며 으쓱거리시는 것 같군요. 와! 정말 강적이다! 저 정도면 정말 신통력이다!

저분과 말을 섞으면 언제나 제가 당하는 기분이군요.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고, 어떤 때는 꼭 한번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대를 하다 보면 꼭 어이없이 제가 당하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데…. 그건 저하고 이야기하는 차원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제가 실제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어허! 여기 무슨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느냐구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 '이름 따먹기' (흠, 삼쾌선생의 작명 실력이 어떻습니까?) 병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름이건 가짜 이름이건 상관없어요. 이름에 대한 분별 집착 그 자체를 매개로 해서 빨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손오공이 휙 빨려 들어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손오공은 태상노군의 화로에서도 견딘 단단무쌍의 몸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녹은 척 둔갑술로 가짜 몸을 만들어 놓고, 작은 벌레로 변신해 있다 빠져나오고…. 결국은 가짜 병을 만들어 바꿔치기하고, 진짜 병으로 병의 주인을 병속에 빨아들여버리는 멋진 반전을 이루는 것이 서유기의 본디 이야기입니다. 이 금각 은각의 이야기는 서유기 가운데서도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목이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유기 어느 대목이 재미있지 않겠느냐구요? 맞습니다. 어디라 할 것 없이 통독을 해 보세요. 그것도 한번만 하지 마시고…. 하하.

호로병서 벗어나는 손오공
이름의 분별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

은 손오공이고 공오손은 가짜 이름이지. 진짜 이름이라면 빨려 들어가겠지만, 가짜 이름으로 날 잡아넣을 수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 속에 벌써 몇 번이나 '진짜 이름', '가짜 이름' 해 가면서 이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짜 이름에 대답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여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아무튼 손오공은 결국 '이름 따먹기' 병의 마수를 벗어나는군요. 그렇다면 손오공은 이제 이름에 대한 분별 집착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다? 몰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손오공이 갑자기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해버리면 뒤의 이야기가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손오공은 여전히 촐싹거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해 줄 겁니다. 갑자기 서유기가 너무 점잖고 재미없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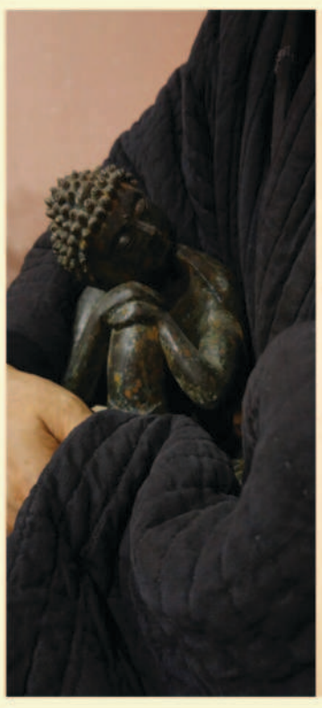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또 뒤통수를 때리지요?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이 일행을 시험하기 위해 태상노군에게 부탁하여 일어난 일이라니! 이거 정말 시험당하는 입장에서는 서러워 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크신 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 참 고달프고 짜증나는 일이지요. 그런 심정이 손오공의 투덜거림에 잘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보살도 참으로 지독하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와서 구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요괴들을 시켜 목숨을 위협해? 말이 틀리지 않은가? 평생 혼자 사는 것도 당연해!"

와! 손오공 대단하죠? 관세음보살님이 혼자 사시는 것도 성질이 나빠서 그런 거라구…. 혹시 정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갸웃거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어쨌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참으로 괴로울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기도 하지요.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요, 편안하고 즐거움 속에서 죽는 것이다" 사람이 근심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 안주하면 결국 크게 잘못되는 길로 빠진다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고달프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리며,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활동시키고 참을성을 길러 주어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큰일을 이룩한 분들의 자취를 보게 되면 대부분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힘을 키우고 인격적인 위대함을 성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할 때 그것을 꼭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달아나려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응하여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달아나려 해도 달아나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느냐고 한탄하고 울부짖어도 절대 온 일이 물러가는 일이 없다는 것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만큼 더 괴롭기만 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일이 닥치든 귀한 손님 맞아 대접하듯 잘 대접해서 보내려는 마음을 먹는 게 편합니다. 피하려는 마음먹는 만큼 더 괴로우니까, 정면으로 마주보고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응, 너 왔느냐? 그래 어떻게 대접해 줄까?" 이렇게 시건방지게 대응할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피하려는 마음먹지 않고 정면으로 딱 마주보면 그토록 괴로워보이던 일이 별 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을 부추겼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로 '정면으로 마주보기' 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단련한다는 적극적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려움을 나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괴로운 것이지만, 시험이라고 아예 생각해버리고 대응하는 것은 또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서유기의 지금 대목은 바로 난관에 이런 자세로 대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고 보니 시험이었다더라"하는 일화를 통하여, "너희에게 닥친 일도 역시 시험일 수가 있느니라"라고 말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역시 시험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하는 기도에 동참하고 싶은…. 이크!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컨닝 같은 거 하지 않구 당당하게 시험에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증 받아 내겠습니다!"해야 되는 거? 애구…이것도 아닌 듯 하네. 다음 시간에 뵈어요.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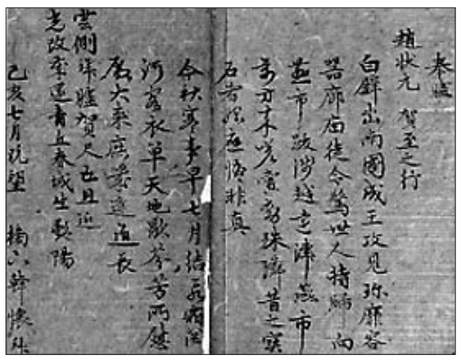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사명대사 불문의 벗… "禪理의 근본은 空"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㉑ 백호 임제

조선 중기의 인물, 임제(林悌, 1549~1587)는 호남이 자랑하는 풍류남(風流男)이다. 평소 검을 좋아하고 피리를 좋아했던 그는 자유분방하여 얽매임을 싫어했던 그의 품성대로 20세가 되어서야 대곡선생(大谷先生) 성운(成運)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그의 기질은 〈국조인물고〉에 '동서붕당(東西朋黨)의 의논이 일어나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명예를 가지고 서로 추켜세우면서 끌어당기었으나 공은 자신 멋대로 행동하고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또 몸을 낮추어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이 현달하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천출로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 날마다 수천 마디의 말을 외웠으며 문장이 호탕하고 특히 시를 잘 지었다' 고도 한다. 평소 산수 유람하기를 즐겼고 명리(名利)와는 거리를 두었다. 한때 술을 마시며 기생들과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응시했다. 하지만 몇 차례 낙방하는 어려움을 겪다가 1577년경 알성시에 급제하여 흥양현감(興陽縣監), 서북도 병마평사(西北道兵馬評事) · 관서도사(關西都事),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역임했다. 벼슬에 환멸을 느껴 방랑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자(字)는 자순(子順)이며 호는 풍강(楓江), 백호(白湖), 벽산(碧山), 소치(嘯痴), 겸재(謙齋)이다. 〈화사(花史)〉, 〈수성지(愁城誌)〉,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등의 한문 소설을 남겼고 문집은 〈임백호집(林白湖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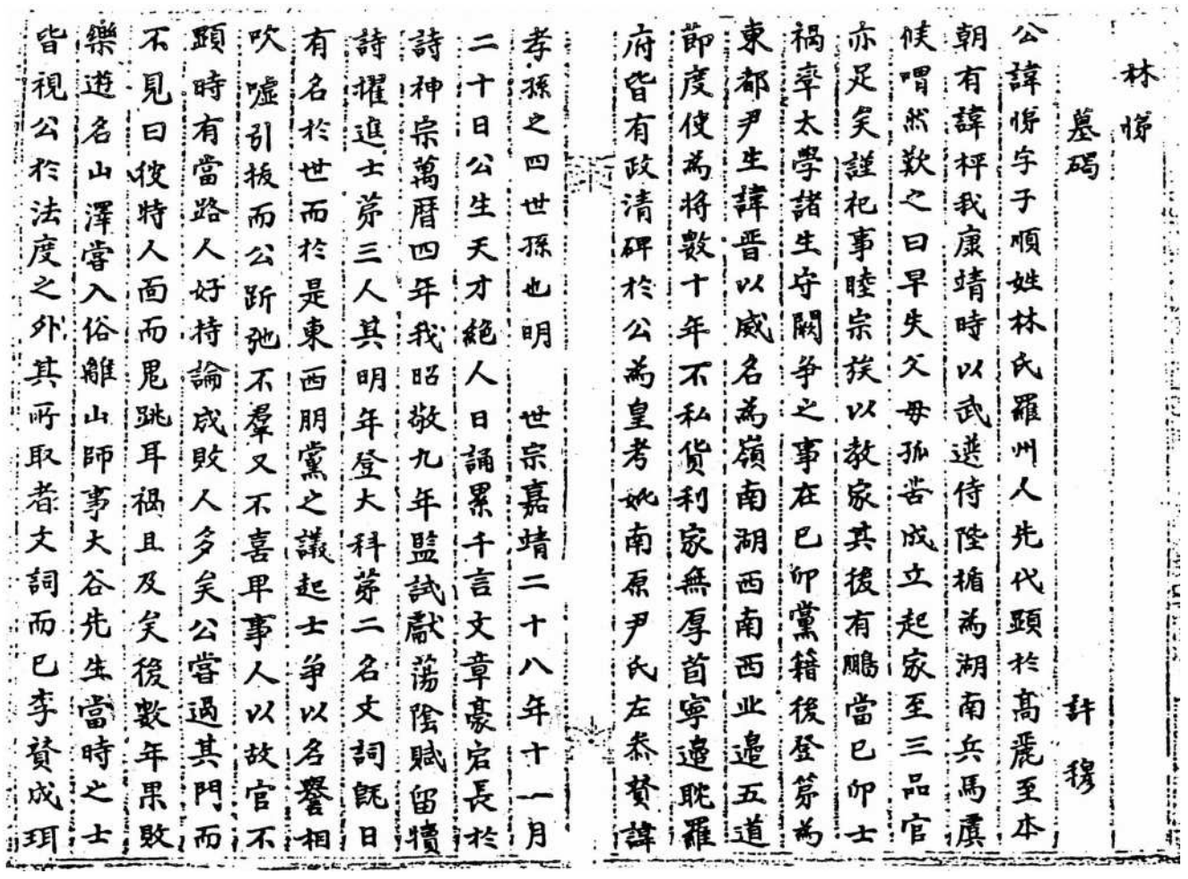

임백호 글씨

대곡선생 성운 문하서 수학
재주 뛰어나도 名利 거리 둬
生死가 모두 공함을 드러내고
불교적인 삶 지향했던 유학자

풍진 세상에서 속리산으로 스승 성운(成運)을 찾아가던 길에 지은 시는 그가 원래 세상에 살기 어려움 품성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드러낸다.

걸음걸음마다 도리어 맑고 밝아져(步步却淸曠)
스스로 속된 세상 흔적에 놀라네(自驚塵世跡)
기이한 바위는 혹은 호랑이인 듯하고
(巖奇或如虎)
오래된 소나무들 용린(龍鱗)을 이뤘구나
(松老盡成龍)
눈 쌓인 산길이라 말이 자주 넘어질 듯한데
(雪路馬頻蹶)
깊은 숲 속이라 사람조차 만나기 어렵구나
(幽林人未逢)
취미사를 찾아가던 길에(行尋翠微寺)
지팡이 멈춘 채 천봉을 바라보네(柱杖望千峯)

그가 시 첫머리에 "주운암에 도착했는데 암자는 속리산에 있다. 법적 나이 20세에 대곡선생에게 수업을 받았다. 이 산에 들어가 공부하며 몇 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到住雲庵 庵在俗離山 公年弱冠 受業於大谷先生 入此山讀書 數歲而還)"는 첨언을 달아두었다. 따라서 그가 대곡선생을 찾아가 공부한 해는 그의 나이 20세일 때였고, 이곳에서 몇 년간 지내다가 돌아온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속리산 주운암은 깊은 산속으로 기암기석과 묵은 송림(松林)이 우거진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의 스승 또한 은일지사(隱逸之士)인 듯하다. 그러기에 속진이 묻지 않은 이경지(異境地)에서 탁마(琢磨)했던 것이 아닐까.


〈국조인물고〉 임제편

실로 임제는 풍류를 아는 선비였다. 그러기에 관서도사(關西都事)로 부임하던 길에 황진이 무덤을 찾았을 것이다. 황진이의 무덤에 술과 시를 올리며 애도했던 일은 그가 풍류와 멋을 아는 인사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청구영언〉에 수록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웠난다.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난다.
잔(盞)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황진이는 세상이 다 아는 문인이며 기생이다. 서 화담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그녀는 조선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다. 자유 분망했던 황진이! 그러나 그녀의 지성과 풍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무상을 노래한 이 시는 실로 임제의 심회를 담아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잔(盞)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했을 것' 이다. 생사가 모두 공한 것임을 일언으로 드러낸 임제의 시는 지금도 회자되지만 당시에는 법도에 어긋난 사람이라 비웃거나 기인한 인물로 치부해 버렸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팍팍한 현실에서는 가슴을 울리는 이들의 뜻을 아는 이가 드문 법이다. 아무튼 그가 산천을 유람하고 수많은 승려들과 교유했던 건 방랑벽과 현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승려들과 화답한 시와 시축의 제발(題跋)은 그의 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매당자명록(梅堂煮茗錄)〉은 주로 지상(至祥), 신웅(信雄), 유관(惟寬), 의영(義英), 충서(忠恕), 가언(可言), 태화(太和), 보기(寶器) 같은 승려와 교유하며 지은 시들이 수록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외에도 묘향산의 성불암(成佛庵), 법주사(法住寺), 해남 대둔사(大芚寺), 안심사(安心寺), 무위사, 영명사(永明寺), 이암(頤庵) 등을 유람하며 승려들과 교유했는데 이들과 나눈 유불교유의 흔적은 그의 문집 〈임백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휴정(休靜)의 제자인 처영(處英)과도 깊이 교유했던 사실은 '산인 처영이 풍악을 두루 구경하고 휴정을 찾아간다기에 시를 지어 주다(山人處英將歷遊楓岳尋休靜 詩以贈行)' 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하제일의 산은 풍악이고(第一山楓岳)
서로 견줄 짝이 없는 건 휴정이라(無雙釋靜師)
지금 상인(上人)이 먼 길을 찾아가니(上人今遠訪)
방초 시절에 돌아온다고는 말하지 못하리
(芳草未言歸)
설법하는 자리엔 돌도 끄덕이고(石點談經處)
바리를 씻을 적에 용이 내려온다네(龍降洗鉢時)
은근히 이환에게 말해주오(慇懃說離幻)
서로 소식이나 끊지 말라고(消息莫相違)

이 시는 휴정의 제자 처영을 위해 지은 전별시이다. 처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휴정을 도와 승병을 모집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환은 서산대사의 자(字)이다. 호는 송운(宋雲)이다. 임제가 이환, 즉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를 불문의 벗이라 불렀던 사실에서 이들의 교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은근히 이환에게 말해주오(慇懃說離幻) 서로 소식이나 끊지 말자고(消息莫相違)"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가 휴정 스님과 깊이 교유했음을 드러낸 흔적은 '성불암에서 휴정 노 승려를 만나 담소를 나누다. 휴정은 일대의 명승이다. 당시 묘향산에서 주석했다(成佛菴 邀靜老話 休靜 一代名僧 時住香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새도 울지 않는 곳(一鳥不鳴處)
그대와 나 서로 한가롭구나(二人相對閑)
속세의 관복과 승가의 법복을(塵冠與法服)
양단으로 보지 말게나(莫作兩般看)

묘향산 성불암은 '새도 울지 않는 곳(一鳥不鳴處)' 으로 깊고도 깊은 암자였을 뿐 아니라 소리조차 끊어진 곳이다. 이들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그대와 나 서로 한가롭(二人相對閑)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속세의 관복과 승가의 법복을(塵冠與法服) 양단으로 보지 말게나(莫作兩般看)"라고 한 것이리라. 임제는 이미 욕망이 사라진 허백(虛白, 텅 빈 순수한 마음) 한 상태였음을 드러낸다. 그의 '잠 승려에게 주다(贈潛師)' 에도 비슷한 뜻을 이렇게 드러냈다.

나는 그대만 같지 못하고(我則不如君)
그대는 구름만 못하네(君則不如雲)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피어오르는데
(無心自出岫)
승속 양단으로 나눠 분분하구나(僧俗兩紛紛)

원래 자연의 이치는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피어오르는 것(無心自出岫)' 처럼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승속으로 나눠 이러쿵저러쿵 이론이 분분하다는 것이니 그는 불가의 공사상과 무분별심을 깊이 알았던 유학자였다. 이는 '법 선승의 시축에 차운하여(次法禪軸)' 라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리의 근본은 공하여 텅 빈 것이라(禪理本空空)
선구를 드는 건 무슨 말인가(拈何向汝說)
깊은 산 승려, 홀로 돌아가는데(山深僧獨歸)
옛길엔 아직도 잔설이 남았겠지(古道留殘雪)

유독 승려들과 교유하며 남긴 시가 많았던 임제는 속진에 살기엔 너무도 맑은 품성을 지녔던 것일까. 그는 선리의 근본이 공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다. 그러기에 법 선승의 시축에 쓴 시에서 "선리의 근본은 공하여 텅 빈 것이라(禪理本空空) 선구를 드는 건 무슨 말인가(拈何向汝說)"라고 하였다. 이는 선리의 근본은 원래 공인데 선구를 들어 참선을 하는 연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한 것이다. '현민 승려의 시축에 제하다(題玄敏軸)' 라는 시에서는 이미 공 도리를 깨친 이의 담담한 모습을 "오래된 나무엔 꽃과 잎이 없고(古樹無花葉) 선승은 이미 생사에 걸림이 없네(禪僧了死生) 책을 펴 담담히 대하니(披圖澹相對) 한 밤중 강달이 더욱 또렷하여라(江月夜深明)"라고 노래했다. 피차의 분별이 사라진 세계는 나와 네가 분별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그는 진정 불교를 깊이 이해했을 뿐 아니라 불교적인 삶을 어느 정도 구현했던 유학자이며 문인이었던 듯하다. 실로 그의 멋과 풍류는 무심(無心)에서 나온 순일을 드러낸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그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바로 이런 풍모를 지녔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 광 명 불 교 대 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우리는 왜 '善行'을 해야 하는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중심 단어가 진여이다. 이 진여에 들어가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해 놓은 것이 기신론의 주 내용이다. 모든 수행이 진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부수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도 설해져 있다.

본문에서 문답한 글 가운데 선행을 왜 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 있다.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며 부처의 본체는 둘이 없는 것이라 하고서 왜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선행을 찾아 배워야 한다 하는가?"

"그것은 비유하면 이렇다. 마니보(摩尼寶) 자체 성품이 밝고 깨끗한 것이기는 하나 이물질의 때가 끼면, 비록 보배이기는 하지만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진여의 법도 자체 성품을 비워 깨끗한 것이기는 하나 한량없는 번뇌의 때가 있다면 가지가지 방편으로 닦아야 깨끗해진다. 이 오염된 때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닦는 것이다."

선행을 닦는 것을 밝게 빛나는 마니보에 끼여 있는 때를 닦아 내는데 비유하였다. 마니보란 경전에 자주 나오는 보배구슬로 가장 값진 최상품의 구슬을 말한다. 온갖 재액과 고난을 없애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공덕을 갖추고 있는 구슬이라 한다. 또 밝고 깨끗하여 빛이 나면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준다는 뜻에서 불성(佛性)을 마니보주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신론에서는 마니보가 진여에 비유된 것이다.

선행은 마니보의 때를 닦아
진여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선행을 닦을 것을 권장한 후에 다시 네 가지 방편을 소개한다. 방편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다. 범어 우파야(upaya)를 번역한 말로 '편의를 위한 교묘한 수단을 쓰는 것을 방편을 쓴다고 한다. 진여의 본성을 법성(法性)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서 이 법성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머무는 바가 없고(無住), 둘째 일체 허물을 떠나 있으며(離諸過), 셋째 어리석음으로 인한 장애가 없으며(離痴障), 넷째 단절됨이 없다(無斷絶)고 하였다.

이러한 법성에 순응하기 위하여 제시한 네 가지 방편은 ①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과 ② 능지방편(能止方便)과 ③ 발기선근증장방편(發起善根增長方便)과 ④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이다.

'행근본방편'은 근본을 행하는 방편으로 실제 생활에 근본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영원불변성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릇된 집착을 일으켜 죽자 사자 다투며 허황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因)과 연(緣)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과(因果)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근본 이치를 알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책임 있게 알아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위한 진여 본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끝없는 이타행을 실천, 중생을 교화하지만 정작 자신은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여 이타의 원력을 더욱 키워 나간다.

'능지방편'은 능히 그치는 방편이다. 말하자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부끄러워하고 허물을 뉘우쳐서 일체 악업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발기선근증장방편'은 선근을 일으켜서 더욱 늘어나게 하는 방편이다. 말하자면 삼보에게 공양 예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여 여러 부처님을 권청한다. 삼보를 경애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두터운 까닭에 믿음이 더욱 늘어나고 능히 위없는 도를 구하게 되며, 또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의 힘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능히 업장 소멸해 선근(善根)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법성이 어리석음의 장애를 떠나 있는 점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대원평등방편'은 크나큰 발원을 평등하게 하는 방편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의 고통을 떠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는 원을 펴는 이 방편은 진여의 본성이 본래 끊어짐이 없는 이치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것이다. 진여의 본성은 영원하고 광대하다. 모든 중생이 모두 이 진여의 본성에서 보면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하여 똑같다. 너와 나를 나누어 둘로 보는 것은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지 못한 망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살의 해탈은 걸인에 의해 완성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⑳ 구걸이 가지는 의미

乞者旣得滿足歡喜悅豫轉相施與亦如菩薩。施乞求者展轉相聞亦如菩薩。菩薩布施流聞一切。諸貧窮者皆來歸向。如曠野樹行人熱時皆往歸趣。菩薩愛樂名勝得解脫。何以故。能使乞求者來使我得施福故。以施福故名得勝處。一切眾生皆來歸集。如是大士悉應敬禮。菩薩心喜卽覺身輕。以此相故當知必有來乞求者。若有人來語菩薩言。有乞者來。菩薩歡喜卽以財物而賞使者。菩薩卽以餘物而與乞者。見乞者來歡喜愛敬。求者言乞° 作此語時懷憐愍心。(걸자기득만족환희열예전상시여역여보살。시걸구자전전상문역여보살。보살보시류문일체。제빈궁자개래귀향。여광야수행인열시개왕귀취。보살애락명승득해탈。하이고。능사걸구자래사아득시복고。이시복고명득승처。일체중생개래귀집。여시대사실응경례。보살심희즉각신경。이차상고당지필유래걸구자。약유인래어보살언。유걸자래。보살환희즉이재물이상사자。보살즉이여물이여걸자。견걸자래환희애경。구자언걸。작차어시회연민심。)

번역

구걸하는 이가 만족함을 얻어 즐겁고 기뻐하며 구걸하던 모습을 돌이켜 보시를 베풀면 보살과 같고, 보시를 구걸하는 이가 모습을 돌이켜 널리 베푼다는 소리를 들으면 역시 보살과 같습니다. 보살의 보시가 흘러 일체가 듣는다면, 모든 빈궁한 이들이 다 찾아오나니, 광야에 나무가 있으면 뜨거운 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이 사랑하고 좋아할 것은 수승한 해탈을 얻었다고 불리는 것이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능히 구걸하는 이가 오도록 하여 내가 보시의 복덕을 얻기 때문입니다. 보시의 복덕으로써 수승한 것을 얻었다고 부르나니, 일체의 중생이 모두 찾아와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 보살을 모두 응당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보살심(菩薩心)을 즐거워하면 곧 깨닫고 몸도 가볍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응당 알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이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와서 보살이라는 말로 구걸하는 이가 왔다고 말한다면, 보살은 기뻐하며 곧 심부름 한 사람에게 재물로써 상을 주고, 보살은 곧 나머지 재물로써는 구걸하는 이에게 줍니다. 구걸하는 이가 온 것을 보면 기뻐하고 경애하며, 구걸하는 이가 구걸을 말하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 깊이 연민심(憐愍心)을 자아냅니다.

해설

보살은 스스로 보살로 머물지 않는다. 보살은 보살을 낳는 어머니다. 보살의 보시는 구걸하는 이에게도 보살심을 자아낸다. 그리하여 구걸하는 이가 그 보살심에 감동되어 자신의 구걸하던 모습을 돌이켜 남에게 베풀게 된다. 이럴 때 보살은 새로운 보살을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은 메마른 광야의 큰 나무그늘이다. 모든 지친 이들의 쉼터이자 위로다. 그리하여 보살의 해탈은 구걸하는 이를 통해 완성된다.

해탈은 올무를 벗어나는 것이니, 그 올무는 다름 아닌 사람의 욕심이다. 베풂을 통해 보살은 진정한 해탈을 얻고, 그 수승한 해탈을 얻었다는 말을 즐거워한다. 보살은 재물이 많고 부유하다는 소리가 아닌, 그것에서 해탈했다는 말을 즐거워하는 존재다.

만약 누군가 구걸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도 감사의 상을 주고, 구걸하러 온 이에게도 나머지 재물을 주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 보살은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도리어 구걸하러 와준 이가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구걸하러 찾아온 이가 차라리 경외스럽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無念, 無相, 無住

중생들이 앓는 병은 집착서 비롯
육바라밀 · 팔정도 실천, 행복의 길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산다.

행복의 요인으로는 재(財) · 색(色) · 식(食) · 명(名) · 수(壽)의 성취와 누림이 우선이겠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또는 오욕락을 멀리하며 해탈(解脫)을 목표로 정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제도적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난 행복 누림의 자유로움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자유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이며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하겠다. 불교의 모든 경전의 시작은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출발해 신수봉행(信受奉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법신(法身)과 보신(報身)과 화신불(化身佛)이 나뉘어 셋 일뿐, 셋이 아닌 하나이므로, 부처와 제자들과의 반복되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책이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유마힐이라는 거사의 가르침이 〈유마경〉으로, 중국에서는 혜능 스님의 가르침이 〈육조단경〉으로, 경(經)으로 이름 붙어져 밝은 빛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육조단경〉의 핵심사상인 무념(無念)과 무상(無相), 무주(無住)에 대해 설명하려한다.

먼저 셋을 설명하기 전에 모든 경전에서 중생들의 집착에 대해 색깔과 무게가 다르긴 하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요 집착에서 자유로운 것이 열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탈과 열반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중생들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쥐고 모으고 챙기려하는 소유욕이 병을 만들고 넘치고 지나침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무소유(無所有) · 무집착(無執着)에 이르는 길을 육바라밀(六波羅蜜)과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으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무념(無念)에 대해 설명하겠다. 경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불(不)'의 반대는 '시(是)'이다. 색(色)의 반대는 공(空)이고, 무(無)의 반대는 유(有)이다. 그러므로 무념(無念)은 유념(有念)의 병을 치유하고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 없을 무(無)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의 노예인 유념(有念)에서 생각의 자유로움에 이르는 것이 무념(無念)인데 이는 곧 생각의 평화, 진정한 생각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프로이드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끌어들임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접 또는 간접의 경험하고 상상했던 일이 꿈속으로 까지 이어지며 생각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 귀, 코, 입, 몸, 뜻을 통해 이어지는 잡념(雜念)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신수행의 첫걸음이다.

덜어내며 비우며 지우는 것으로 시작해 텅 빈 충만에 이르는 것이 무념(無念)이다. 생각은 남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나 그 뿌리와 흔적이 깊고 진하면,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입거나 근심걱정을 키우게 된다. 생각은 타인(他人)이 원인제공은 할 수 있으나 생각의 노예에 이르는 것은 남 탓이 아닌 내 탓인 것이다.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주체도 나이지만, 생각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할 의무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념(無念)은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생각의 자유를 뜻함이다. 다음은 무상(無相)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허상과 허울, 티내고 으스대며 명분과 실리(實利)로 둔갑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고 보면 형식과 체면유지 모양새와 명예 등이 참으로 부질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無相)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유 · 무형의 온갖 형상들이 덧없음을 알아차려 형상과 틀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가르침이다.

다음은 무주(無住)이다. 재산과 명예, 사랑과 성공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거짓일 뿐 머묾 없이 흘러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스쳐지나갈 뿐이다. 머묾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주(無住)이다.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불기 2560(2016)년 병신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조성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안거에서는 실천수행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가불자들에게 수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가불자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① 기 간 : 하안거 기간과 동일 **2016. 5. 21(토/음 4.15) ~ 2016. 8. 17(수/음 7. 15)**
② 동참금 : 2만원
③ 입재식 : **5월 19일(목) 오후 2시** 홍법사 (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 법문)
④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을 회향하신 분들에게는 안거증 발행
⑤ 참여한 재가자들에 한해 수행록 제공

입 재 식

- 일 시 : **5월 19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홍법사**
- 법 문 : **수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국 ☎ 051)501-7554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열린 불교 아카데미 제3기 개강
원순스님의 〈선요 禪要〉

개강일시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강의기간 2016년 **5**월 **23**일 ~ 2016년 **9**월 **26**일 (4개월 과정)
장 소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5월, 열린불교아카데미의 세 번째 법석이 열립니다.
〈금강경오가해〉〈대승기신론〉〈치문〉〈중론〉〈명추회요〉〈법보단경〉 등 다양한 경전 해설서로 전법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 원순스님이 선수행의 요체 〈선요禪要〉로 불자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선요〉를 수지하여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우주법계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자재한 삶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수승한 공부 길에 함께 할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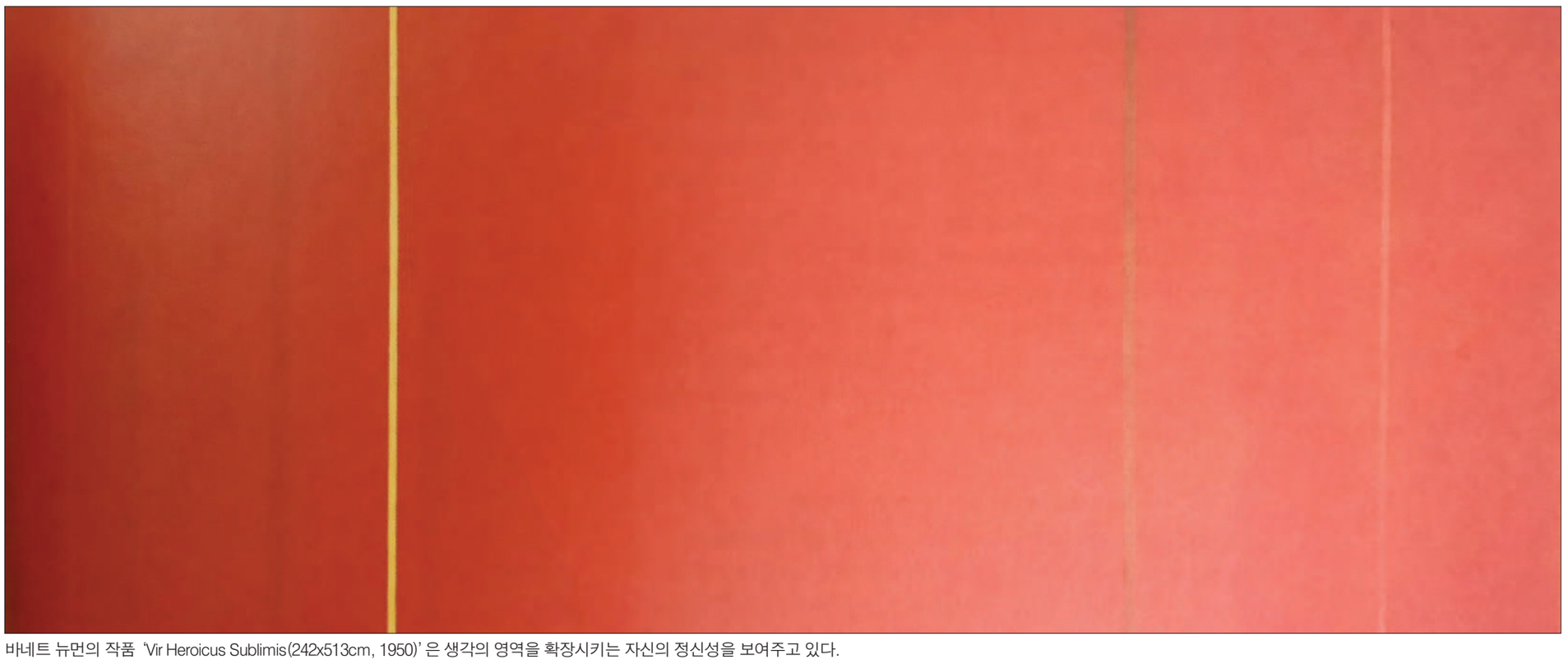
수강료 월 5만원
문 의 열린불교아카데미 **010.3564.3725 / 051.244.0263**
이메일 puremind-ms@daum.net

법사 | 원순스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 건너편 성원주차빌딩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의 조형언어… '不立文字'를 보이다

禪과 현대미술
⑨ 바네트 뉴먼 (Barnett Newman)


바네트 뉴먼의 작품 'Vir Heroicus Sublimis(242x513cm, 1950)'은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자신의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경험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적 깊이를 동반하는 그 도전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 변화의 가치를 논하기보다 그 변화의 과정을 논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어 보인다.

바네트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 미국)은 예술의 영역에 철학적 관점을 접목시킨 선구자 중의 한명이다. 철학을 공부한 그는 시대의 혼란기에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였다. 당시 앵포르멜(Informel),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등 실험적인 시도들이 팽배하며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 뉴먼은 자신의 관심사인 '침묵', '명상'을 예술로 승화하고자 하며 자신만의 표현기법과 미학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당시에는 마크 토비, 마크 로스코 등 일부 작가들이 동양의 선사상에 심취하여 새로운 표현을 통한 정신성을 표현하는 시도를 하던 때이다. 뉴먼 역시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서적을 탐독하여 침묵도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언어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이러한 것이 모두 사라진 침묵도 동일한 언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상당한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말하지 않고 소통을 한다. 즉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침묵은 그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것이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언어나 글이 사라진다면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가면 말이나 글을 듣고 봐도 이해할 수 가 없다. 영어를 알지 못하면 눈으로 보이는 글씨도 이해할 수 없고 열심히 무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현지인의 말도 전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언어나 글은 서로 소통하기 위한 기호이며 이는 이를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서로 소통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침묵은 문화의 권역을 넘어 더욱 강력한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예술에서는 이미 조형언어라는 소통방식을 형성하며 언어, 문화, 종교, 철학 등의 차이점이 있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도 비교적 공통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활용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을 인지한 뉴먼은 자신의 예술 속으로 침묵을 들어오게 한다. 화면에 가득한 색면(色面)은 아무런 말이 없다. 다시 말해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상징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오로지 말할 수 없는 무언이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통하여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없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화작품은 대상이 존재하여야 하고 구도와 색채의 조화가 있어야 하고 등등 다양한 이론적 체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관점으로 보면 뉴먼의 작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그는 명상을 생각하였다. 명상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성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뉴먼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하여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며 내면의 깊은 울림을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다.

선(禪)의 4종지 중의 하나인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의미를 깊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뉴먼은 이를 침묵이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관(觀)하라고 한다. 언어나 글자로 표현된 표상이 아닌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깊게 사유하여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라는 것이다.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며 달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달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외부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여 그 속으로 가야한다는 관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뉴먼의 침묵이다.

'Vir Heroicus Sublimis(1950/51)', '장엄한 영웅시'로 번역되는 이 작품은 뉴먼의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거대한 크기(242.2x513.6cm)의 이 작품은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자신의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느다란 작은 간격은 커다란 화면을 분리시킨다.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으며 생각의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뉴먼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가장 단순하면서 상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거대한 외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는 생각의 틈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한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나 의도가 아닐지라도 계속에서 번뇌망상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침묵 · 명상, 예술적 승화 노력
"작품은 마음을 옮기는 과정"
뉴먼 스스로 禪 수행에 매진

"내면의 본질적 자아 인식위해
우리는 오로지 침묵해야 할 뿐"

뉴먼은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본질적이며 분리되지 않는 무언가의 힘에 의하여 인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들을 화면 속으로 등장시킨 이 작품은 자신의 생각이 사라짐과 생성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표현의 질감이나 색채의 변화보다는 생각하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한 그의 노력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기를 원한다. 즉, 침묵하라는 것이다.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강한 에너지를 색과 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작가의 의도대로 깊은 명상적 관점을 느끼게 된다.(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작품은 자신의 마음을 옮기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뉴먼은 그 마음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Wer hat Angst vor Rot, Gelb und Blau(1966)', '누가 빨강색, 노란색, 청색으로부터 두려움을 갖는가'로 번역이 되는 이 작품은 스스로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는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소통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의 범주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색은 시각적인 자극을 가져다준다. 시각적인 자극을 인지하는 순간 그 색은 사라지고 정신만 남는다. 그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뉴먼이 인식하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각적 자극에 현혹이 되면 색을 떠나지 못한다. 색을 떠나지 못하면 색은 많은 경험을 생각하게 하며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각의 깊이는 사라지고 시각적인 자극만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명상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경함한 부분들이 연결 작용을 하며 새로운 상상 속에서 인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망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고통도 자신이 만들어 낸 허상일 뿐이다. 어떠한 경험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 단지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뉴먼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스스로 새로운 생각의 방식들을 만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마치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제시하듯이 말이다. 처음에는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소통의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처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힘이 생기며 스스로 존재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 묵묵히 그 길을 간다. 하지만 정해진 길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

예술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도 그 길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길은 수행자의 길과 유사해 보인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남이 해놓은 길을 가고자 함이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같을 수가 없다. 마치 저 산에 올라가는 길은 무수히 많으나 산 정상에서 만나듯이 꼭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가야한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뉴먼은 명상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다. 그 길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다란 길로 변화하여 그 가치를 지금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정신을 깊은 침묵 속에서 명상한 그는 떠나고 없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전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 산 불 원
051-231-6455 / 010-9049-0016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3칸 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다그라스 목재기둥 : 180×180×2,700㎜ 다그라스 대들보 : 180×240㎜
다그라스 목재도리 : 108×180㎜ 다그라스 목재서까래 : 100×100㎜
목재판매 :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 300×300×300㎜
■ 가격 : 평당 1,500,000 원하는 평수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선택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 290,000~~ ➡ 할인가 : 190,000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자재기둥 : 110×90×400 도리 : 80×35 중간대 :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禪으로 그려낸 달마·천진불, 현해탄을 건너다


동성 스님의 작품 '달마도'

동성 스님 등 7인 日 오사카서 초대전 개최

깨달음을 주제로 한 선묵(禪默)들이 일본에 전시된다.

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에서 활동하는 동성 스님 등은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2016 둥글고 밝은 빛'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동성 스님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진리'를 전하고자 1978년 부산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38년간 '붓다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묵화'를 재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몽골 등 세계 주요도심 순회전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는 불교의 공사상을 근간으로 한 '공을 든 달마도'로 비움과 채움의 진리를 일깨우는 세계인의 화두인 '공(空)'을 표현했다. 2006년에는 세계 4대 古都 인 중국 시안(西安)에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사문동성달마화비(沙門東惺達磨畵碑)'가 세워져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2013년에는 인도 델리대와 뭄바이대에서 '선과 정신문화의 기술화'라는 특강과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한·일수교 51주년 기념으로
24~28일, 日 한국문화원서
선묵화 25점 등 전시 진행

이번 전시회도 선묵화를 통해 보여주는 직관의 세계를 보여준다. 전시되는 선묵화의 테마는 △천진불 △보살도 △달마도 △나한도 △미소동자로 나뉜다.

순수한 아이와 자연을 표현한 천진불은 수많은 시공간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며, 중생들의 어려움을 돕는 보살도는 영원한 빛과 생명의 화현을 표현했다.

진리를 의미하는 달마는 선적인 고요한 마음의 집중과 직관을 상징하며, 나한도는 언제나 깨어있는 밝은 마음과 수행을 화폭에 담아냈다.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다양한 선지식을 만나는 선재동자를 의미하는 '미소동자'는 모든 만남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는 설법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동성 스님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의 밝은 희망을 열어가는 삶과 생명의 실제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라면서 "많은 관람을 통해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깨닫는 선적 체험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전시에는 동성 스님의 선묵화 25점 이외에도 원학 스님(前 조계종 총무부장), 우현 송영방 동국대 명예교수, 청계 양태석 고려대 교수, 윤산 강행원 가야미술관 관장, 범석 김대열 동국대 교수, 월암 정영남 현대한국화협회 대표, 서래 김선희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 등 7인의 초대작가의 작품 10여점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 대해 고토 텐쇼(後藤典生) 고다이지(高台寺) 집사장은 "동성 스님은 선묵화를 통한 모색과 담론을 제시하는 한편 내적 사유와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 선사상과 예술 내용을 조명하면서 이를 시각언어로 드러내고자 했다"면서 "선적인 지혜와 자유를 상징하는 동성 스님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참된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큰 전환기에 있는 한일 양국의 교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왕청일(王淸一) (재)일본학연구소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선묵화는 외적인 사물의 형상보다 내적인 마음의 형상을 통해 삶의 참다운 자유를 상징한다. (동성스님의 작품은)인간본연의 고요한 마음, 충만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작품"이라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자신의 참모습 볼 수 있고, 참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수로 놓은 불화, 저절로 합장이

최유현 자수장, 5월 22~29일 '心線神針' 전시

단순히 사진 도록만 봤을 뿐인데도 아찔하다. 다양한 색깔의 실을 한올 한올 바늘귀에 꿰어 다시 도상 위에서 부처로, 보살로 수놓아졌을 그 지난한 과정을 생각하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0호 최유현(80) 자수장의 작품은 일반적인 자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예천 용문사의 '연화장세계도'를 발굴해 수를 놓아 모사했고, 팔상도·삼세불도를 자수로 옮겼다. 최 자수장의 자수 외길 인생 65년을 총망라한 전시회가 열린다.

최유현 자수장은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心線神針(심선신침)' 자수전을 개최한다. 이번 자수전에는 최 자수장이 그간 제작해 놓은 불화, 민화와 소품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최 자수장은 1988년 〈연화장세계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불교에 심취해 한국불화 자수 작업에 몰두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 삼세불도, 지장보살도, 팔금강도 등의 불화를 자수로 표현해냈다. 그리고 효제도팔곡병풍, 십이지신도 등도 최유현 자수장의 섬세한 손끝에서 재탄생했다.

최유현 자수장은 "규방문화에서 나온 자수로 입문했다. 민화, 민속문양 등을 작업하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문양을 찾다가 불교를 알게 됐다. 40대 이후로는 주로 불화작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자수장은 "불교미술은 내 작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자수인생 65년을 정리하는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자수 외길인생 65년 총망라
불화·민화 등 100여 점 전시

최 자수장은 1936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했다. 13세 때 바느질을 배웠고, 15세 때 스승인 권수산 선생 문하에 입문해 6년간 사사하면서 본격적인 자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에 있는 여중과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과 자수를 병행했다. 1960년 초 전통자수를 널리 나누고자 최유현자수연구소를 개설해 제자를 양성했다.

국내에서 20여 차례, 해외에서 5차례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 자수장은 10~20대에는 규방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자수를, 30대부터는 우리 민화와 옛 유물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문양 자수를, 40대 이후로는 불화 자수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 불화 자수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됐으며, 전국 공예공모전과 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약 40년간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자수문화연구소 중수원(中繡院)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후학 양성을 해오고 있다. 현재 부산대 복식문화연구소에서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최유현 자수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 '연화장세계도(연화장세계도 1978~1988 270X300)'의 전체 모습〈사진 위〉과 작품의 부분을 확대한 모습.


자수로 표현된 정밀함에서 명인의 풍모가 돋보인다.

괘불 보고, 소원도 빌고

국립박물관, 11월 6일까지 '상주 북장사 괘불'前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대형불화의 진수 '괘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테마전 '상주 북장사 괘불-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를 개최한다.

평소에 대하기 힘든 사찰 소장 괘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테마전은 올해 11번째를 맞는다.

보물 제1278호 '북장사 괘불'은 13.3m의 높이로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괘불 중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석가모니 부처의 영취산(靈鷲山) 설법이 그려진 불화에는 광배를 뒤에 두고 서 있는 부처를 압도적인 규모로 배치하였다. 특히 야외 법회를 위한 괘불의 기능에 맞게 예배의 주존(主尊)을 더욱 부각시켜 긴 화면에 서 있는 부처로 그려냈다. 이러한 변화는 '북장사 괘불'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지역의 영산회(靈山會) 괘불 도상(圖像)으로 확산됐다.

괘불 전시와 연계해 불교회화실에서는 옛 사람들의 구체적인 염원을 볼 수 있는 불화들을 전시한다. 자비를 베풀고 재난을 구제하는 관음보살(觀音菩薩)을 그린 불화, 하루 빨리 아들 얻기를 기원하는 '독성도', 수명장수를 바라는 '신중도' 등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이야기를 불화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작년 구입한 보물 제1204호 '관음보살도(1730년)'가 첫 선을 보이며, 보물 제1882-2호와 1883호로 새롭게 지정된 고려시대 나한도 7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고려불화 '오백나한도'와 '십육나한도'는 2층 불교회화실에서 3점, 1층 고려실에서 4점을 전시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북장사 괘불. 석가모니 부처가 서 있는 모습으로 설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염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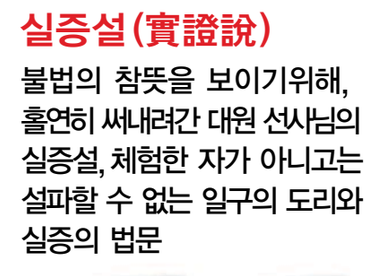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5.4~2015.5.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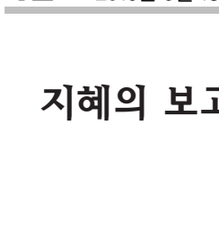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3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4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5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6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7	연기법으로읽는불교	목경찬	불광출판사
8	혜총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혜총	(주)조계종출판사
9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10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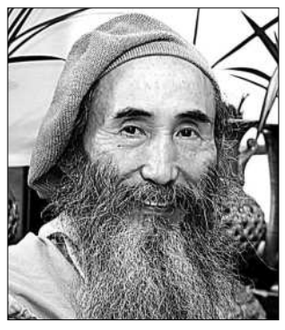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직관과 통찰 가득한 선어의 세계 담아

선시감상사전 전 2권

석지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3만8천원, 5만8천원





우리나라에 '선시'라는 장르를 처음 알린 석지현 시인 스님〈사진〉이 옮기고 해설한 〈선시감상사전〉이 20년 만에 재출간돼 화제다. 한국편과 중국·일본편 등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명문(名文)으로 알려진 한·중·일 선자(禪者)와 시인(詩人) 306명의 작품 1,431편(한국 107명 997편, 중국 169명 260편, 일본 30명 174편)이 국가·연대·작가별로 정리돼 있다. 작가 소개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살피고, 작가별·원제별 찾아보기를 덧붙여 시사전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는 깨달음을 노래하면서도 문자의 미혹서 벗어나려 한 선승들의 오도(悟道) 세계, 존재와 세계에 대한 직관과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시인들의 언어 세계가 담겨져 있다. 선승들이 느낀 깨달음의 희열을 노래하는 시, 겸허한 침묵 속에서 우러나온 생활의 서정을 노래한 선시들은 물론, 선적이고 명상적 분위기가 풍기는 시,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선시들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깨달음을 선사한다.

이 책의 편저자 석지현 시인은 특유의 감각적 시선으로 방대한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새롭게 읽어냈다. 각 편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각주와 해설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져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선시감상사전〉은 한마디로 불교에 관심 가진 이들은 물론 깨달음의 희열을 느껴보고자 하는 이들, 차분히 시적 감응에 취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념비적 대작불사이다.

저자는 "〈선시(禪詩)〉를 펴낸 지 어언 2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나의 정신적 편력은 불교에서 탄트라 감각의 세계로, 라즈니쉬로, 구약과 신약의 세계로, 힌두 명상의 세계로 끝없이 이어졌다. 이제 그 방황은 가장 겸허한 하나의 인간으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대강 그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이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이 동굴의 침묵 속에서, 나는 22년 전으로 되돌아가 내 영혼을 차갑게 울리던 그 감성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기존의 책 〈선시(禪詩)〉를 기초로 내 일생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인 〈선시감상사전〉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힘든 일이라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일에 매달리기를 4년,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머리말을 통해 심경을 고백한다.

선시 감상 최고 안내서 20년 만에
韓 中 日 선자와 306명 작품 소개

〈선시감상사전〉을 펴내면서 저자는 스스로 겸허한 한 인간으로 되돌아 왔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차갑게 울린 감성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불교, 힌두교, 밀교, 기독교 등 국경과 종교를 넘나들던 그의 정신적 편력, 그 귀결점은 바로 선(禪)이었다.

석지현 시인은 〈선시감상사전〉을 펴낸 후 〈벽암록〉(전5권, 2007년), 〈종용록〉(전5권, 2015년)을 차례로 펴냈다. 모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그는 이 땅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선(禪)을 알리고, 선시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소진했다. 선어(禪語) 번역에 매달리는 몇 십 년 동안 시인의 구도 여행은 계속된 것이다. 언어를 매개로 시공을 가로질러 깨달은 선지식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면서 그의 내공은 점점 더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선어의 정수를 담은 '사전'이, 삶에 대한 통찰로 가득 찬 '감상집'이 탄생할 수 있었다. 석지현 시인은 이번 〈선시감상사전〉을 통해 선시를 읽는 것이 어떻게 곧 깨달음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우선 한국편 분량은 굉장히 방대하다. 저자가 한국 선의 원형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승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 실린 월명사와 충담의 향가, 순례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의 시가 이어지고, 지눌의 제자인 진각 혜심의 시, 원감 충지, 백운 경한, 태고 보우, 나옹 혜근 등의 선승들의 시뿐만 아니라, 고려 말 함허 득통의 시, 조선 시대 매월당 김시습, 허응 보우, 청허 휴정, 정관 일선, 사명 유정, 공안선시의 거장이던 청매 인오, 기암 법견, 소요 태능, 중관 해안, 편양 언기, 조선 말기의 경허 성우의 시가 이어진다. 근래의 만해 한용운, 원광 경봉의 시도 실렸다. 경봉 스님의 시는 옛 선승들의 도인풍을 보여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승이다.

중국편에는 중국 선문을 이은 대통 신수, 육조 혜능, 조주 종심, 선월 관휴, 포대화상, 설두 중현, 천동 정각, 야보 도천 등의 선승들의 시가 실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선시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당대의 시성들, 즉 왕유, 이백, 전기, 백거이, 유종원, 소동파 등이 쓴 주옥같은 시도 만날 수 있다.

일본 선시는 섬세하면서도 파격적이다. 준엄한 선승의 세계를 노래하는 동시에 성적인 희열을 노골적으로 읊은 일휴 종순의 시는 선문의 금기를 깨는 파격적 시세계를 보여준다. 하이쿠의 거장 송미 파초의 시는 인간 본연의 고적감이 짙게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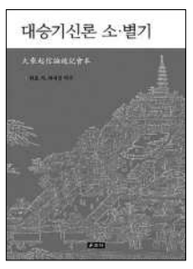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모두 1,431편의 선시가 국가·연대·작가별로 나누어 담겨 있다. 작품은 작품성 위주로 선정됐다. 수록된 각 개인의 배열순서는 모두 출생연대순이다. 출생연대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전후 사정을 참작하거나, 〈연대미상〉편에 별도로 묶여있다. 석지현 시인은 시제(詩題)만 보아도 어떤 시정을 노래하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쉬운 제목을 달아 놓았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한글세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부록에 있는 〈작가소개〉는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해당 작자와 작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자와 원제(原題)별로 나누어〈찾아보기〉를 실었다.

김주일 기자

쉽게 풀어쓴 대승불교 핵심 교과서

대승기신론 소·별기

원효 지음 | 최세창 역주 | 운주사 펴냄 | 3만원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정수를 간결히 정리한 대승불교의 기본 교과서이다. 수많은 주석서 중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소·별기〉가 가장 탁월해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서 〈해동소〉라는 별칭으로 존숭받아 왔다. 이번 역주본은 〈기신론〉과 〈기신론 소·별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대승의 정수와 원효의 사상을 만날 수 있게 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라는 뜻으로, 대승은 중생의 마음인 중생심을 말하며, 그 중생은 각자의 '자기 자신'을 뜻한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라는 의미이다. 〈기신론〉은 글이 간결해 읽기는 좋으나 그 뜻이 심오해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다. 짧은 글 속에 대승법체의 정수를 모두 담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백가지 경전서 불법의 엑기스만 가려 뽑아 대승법체의 논을 논리화, 체계화해 회통(會通)시킨 대승불교의 핵심 교과서인 셈이다. 그러기에 경전이 아닌 논서임에도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필수 교재로 존숭 받아온 것이다.

역대로 정영혜원, 현수법장, 원효대사의 주석서를 '기신론 삼대소'라 한다. 그 중에서 원효의 주석서는 한국은 물론 중국서도 〈기신론〉 공부의 기본 문헌으로 삼았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해동소〉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유명한 저술이다. 뿐만 아니라 화엄종의 창시자이자 중국서 가장 널리 읽히는 주석서인 〈대승기신론의기〉를 쓴 현수법장은 원효의 〈해동소〉 내용을 대거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킨다.

원효의 〈기신론소·별기〉에 담긴 사상이나 교판은 논쟁이나 종파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법문의 화쟁(和諍)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종파를 초월해 일심(一心)의 원천으로 융회(融會)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 설명과 화쟁사상이 〈기신론소·별기〉안에 명쾌히 들어 있으니,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에서 이보다 위대한 사상은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이 책은 이런 〈기신론소·별기〉를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1,100개가 넘는 주석을 달아, 불교 전공자는 물론 원효사상에 입문하는 독자들도 용어나 개념서 오는 어려움 없이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지금껏 나온 어떤 번역서보다 쉽고 상세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원효 스님의 〈기신론 소·별기〉는 이미 시중에 몇 권 나와 있다. 하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전체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제시
한문원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가능

를 압축한 대의인 서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무엇보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등의 문제들도 있다. 특히 원효 스님의 서부분은 〈대승기신론 소·별기〉 전체를 압축하면서도, 다양한 경론을 인용함으로써 일심(一心)으로의 회통(會通)을 시도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며, 원효 사상의 특징이랄 수 있는 화쟁사상을 정교하고 활연한 교학적 논리로 밝히고 있어서 자체만으로도 소(疏) 전체를 가름하는 하나의 작은 논(小論)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독자들 누구나 번역문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대승기신론〉과 〈기신론 소·별기〉 원문을 읽고 해석해 스스로 마명보살과 원효대사의 사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기신론〉과 〈소·별기〉를 누구나 쉽게, 그러면서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한편 이 책은 우리말에 번역 근거가 되는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서로 비교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독자들 스스로 한문구조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역을 하여 자기 견해를 갖도록 배려했다. 〈기신론〉 본문에 대해서는 번역자의 오랜 수행경험과 독서를 바탕으로 한문본을 보지 않고서도 전체 내용이 숙지되도록 한글 번역본을 바탕으로 방대한 주석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딪치는 개념과 의미 이해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소·별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석을 자제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석을 달았다. 이는 〈기신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 스스로 〈소·별기〉를 주체적으로 사유해 소화하도록 하려는 배려이다.

한국불교서 원효대사의 위상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대승기신론 소·별기〉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한국불교계에서는 〈소·별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번역본도 몇 차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이나 책들은 원효의 사상을 이해하고 싶은 일반 불교신자나 일반 독자들에게 너무 무겁고 어렵게 다가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고,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주석과 함께 본문을 원문과 직접 대조해 번역문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책은, 〈대승기신론〉에 대한 정확하고 쉬운 이해와 〈대승기신론 소·별기〉에 담긴 원효의 문장과 사상을 직접 접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감로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화경으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만나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BTN 인기법사 '효동 일우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침

33관세음보살님 친견하는 절
대구 성관음사
대구 남구 양지로 95
☏ 053)655-3380
매월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법회 봉행합니다



삶의 브릿지
일우 지음 / 해조음 / 231쪽 / 값 13,000

믿음과 기도 실천으로 이루는 지혜와 복덕의 신행지침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無常)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언제나 이대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일우 지음 / 도서출판 운주사 / 231쪽 / 값 15,000

법화정법, 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진수요 심장이다!

잘못된 습관과 업력,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던 응어리를 풀고 그 자리에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에 닿을 수 있고, 구경에는 부처님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일우 지음 / 도서출판 운주사 / 341쪽 / 값 15,000

법화 신행으로 이끌어주는 알기쉬운 법화경 강의

믿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 중생의 가련한 육도윤회에서 처음과 끝에 방점을 찍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피이야기
일우 지음 / 현대북스 / 231쪽 / 값 13,000

맑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경책이 담긴 소참

내 작은 삶 속에서 감사함을 모르면 어디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원천이요. 미래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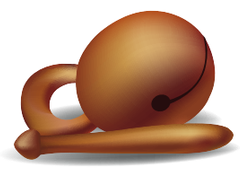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굴러 떨어뜨리듯이 욕망이 일어나면 잠시라도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언제나 사색과 명상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 본생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초상화 주문 받습니다
낡고 변형된 사진을 최고급 실크로 제작, 흑백 증명사진을 컬러로 예쁘게 만들어 드림. 청하스님 최고 氣달마. 재물과 복을 주는 놋쇠로 만든 삼조고, 업두꺼비와 복돼지 특별주문
010-8561-8253

여래사 여수불교대학
주지 및 학감스님
모십니다. 전라도 불교포교에 관심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
010-9351-63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신경성 질환,불면증 화병, 기(氣)치유법
사찰,개인,대학병원,증세 심한분, 배울 분 출장, 최고의 치유법 자신함
저작권등록 심리철학 제C-2015-023718호
(한의학과 철학의 공통점)
다음 카페 몸과 마음 건강법 철학과 심신건강법
(심리철학, 건강철학, 부부철학)
경력 : 심리철학(관) , 결혼상담
1945년 11월생 혜천
010-4078-7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기도하시면서 함께지낼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비구니 도량)
010-4314-789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지역)
010-5269-93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특수한 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60대 초반 비구승입니다.
스님이 안계신 사찰이나
암자 구합니다
(가정생활 상담합니다)
010-4936-9929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종로)
010-3025-726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호국종찰)
대중이 총 5명으로 한가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041-734-8730 / 야간 010-4733-8400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 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 (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 (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 (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 등의 항균,탈취
70ml (휴대용)×1병 = 3,900원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제11기 풍수건축 인테리어 전문가 과정 강의안내
집중력이 모이는 곳에 책상을 배치하고, 복록수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풍수인테리어의 핵심이며,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는 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강의 목적
한정된 터에서 풍수적인 논리를 적용해 복된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나아가 공간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조합하여 건강과 복, 록, 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강 대상
도시공간설계 및 개발담당 공무원, 부동산 거래 및 관리 담당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감정평가사, 조경설계 및 시공업자,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자, 부동산 컨설팅 담당자, 건축예정 일반인,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업자, 기타 풍수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개강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9일(일요일) 14시 경기도 광주시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교육기간 2016년 5월 29일 ~ 2016년 7월 3일 (총 6주차)
강의시간 이론 강의 : 일일 3시간(6회), 실습 평가 : 5시간 (1회)
강 사 김 경훈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장,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명예이사장)
수강료 및 입금계좌 교육비 : 600,000원 (수강료, 교재비, 패철, 수맥 탐사봉비 포함)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모집인원 20명 이내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신청 및 문의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 031-798-4595 / 010-7314-5336
※ 자세한 사항은 http//:www.luckyfi.com의 〈개강예정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행운풍수지리학회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숲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 반야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 위 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 일부 주거지
- 건 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6억 8천

연산공인중개사 051-863-6622
010-3560-8522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논산시암자, 인법당이며 산신각 주창장 있음
- 토지 610㎡. 건물 96㎡
- 마을조용함, 국유지 사용
- 시설 깨끗하며 리모델링 했음
- 양도가액 : 2억 2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60평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시내
- 총부지 : 230평
- 건물 : 법당(20평), 요사채(방4개), 텃밭
- 앞바다가 한눈에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 몽땅 2억 5천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중랑구(급)사찰

- 양도 5억 2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
- 2층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 역세권, 전망좋은 사찰
- 뒷편은 산이고 옆으로 산책로가 있음
-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군산읍 족실길 52
- 진악산 등산길 옆 선공암 절
- 조용하고 금산 전경이 다 보임
- 대지 454평, 법당 27평 요사 2동(방 4), 거실 大
- 가액 : 3억 5천(절충가)

010-4355-6356
010-3401-635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대지 400평(주차장완비)
- 건평 50평 1동, 20평 1동
- 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용궁
- 가액 : 1억 7천 5백 즉시입주

010-3796-4852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읍 관음리 (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 (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농지 : 전 221평 (귀틀집 농막 6평 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 기타 :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구거부지도 사용 중

010-8555-44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
- 주방, 시설비 금액은 4,7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으로 2,000만원 인수하실분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010-6739-04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소재
- 부지 : 250평(종교용지)
- 법당 : 60평 (2층, 목조, 3포 7포,단청, 주지실)
- 요사채: 60평(1층, 종무소, 공양간, 방4개)
- 가액 : 11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의 대가람 포교도량임 (타물건과 교환도 가능)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팔공산자락)
- 부지 : 11,000평(대지, 답, 임야)
- 법당 : 40평(임법당)
- 산신각 : 10평
- 기타 : 석불, 석등
- 가액 : 7억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적지임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010-4292-0455 / (서울)010-5848-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거리
- 몽땅 2억

010-8861-17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없음

010-3742-5925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서울까지 60~40분 소요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실입주금 3억 (융자 1억5 천)

010-4234-25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임 대

-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절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평 정도 됩니다
- 전세 금액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장실3개, 시설완비
- 주차,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2천(절충가능)

010-4918-2597

대형포교원(도심사찰)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2
- 3층: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 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전통 찻집 임대

- 위치: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종점
- 숙식가능, 싱글 강추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 권리금 유

010-9394-1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중심가
- 평수 60평 정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시설완비, 즉시법회, 난방비 무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절충 가격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월출산 국립공원(내)
- 법당, 요사, 와가, 목조건물 2동
- 산신각 1동, 토지, 임야포함 1천평
- 계곡있고 경관좋음
- 시내차로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26-9588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영해면
- 대지 300, 전 45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8천만원 (새마을금고융자 3200만원)
- 사찰에서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대진해수욕장10분거리 (답사후 가격 절충가)

010-4747-3164

멋진2층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 아차산역 5분거리
- 인체리어 잘되어 있음. 건강상급안내
- 약50평(2층),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베란다, 화장실2개
-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약사) 동불임
- 탱화는 후불탱화, 지장, 신중,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법당만도 가능. 상담 후 결정
- 불교행사 편하게 할수 있는 절
- 가액 : 2,500만원, 월 160만원

010-2333-30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1층 38평
- 방 2칸, 욕실, 도시가스, 주차장, 앰프시설
- 법당, 약사여래석불, 관음보살, 비품일체 등등
- 가액 : 5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9150-0029

팬숀 별장식 토굴

- 위치: 경북 북부지역
-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1급수
- 신축건물 2년반
- 계곡 끝자락에 마지막집
- 땅 500평, 건평 30평, 농지 3필 500평
- 가액 : 2억 2천

010-5424-4969

별장식 임법당 안내

- 위치: 경북 북부지역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400만원

010-3723-0777

전원주택지 명당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대지 : 255평, 황토방과 가건물
- 특징: 호수와 계곡이 인접한 정남향 명당, 토굴과 공방 전원주택 최적지
- 애착을 가진 땅이나 이사관계로 긴급 처분
- 가액 : 1억4천(상담후 조절 가능)

연락처 010-5598-2732
010-9943-222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2평, 3층 중 1층
- 오존불, 소불 등 각단 탱화 법당 장엄하게 시설완벽함
- 쪽툼질, 방2칸, 쪽방 2칸, 부엌 및 거실 큼, 주차시설 완벽
- 인근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스님 환영,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 불사 및 노후보장 좋은 절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삼존동불, 인등 300등
- 15년 기도수행도량
- 가액 : 1억 5천 또는 전세 1억 2천 가능
- 좋은인연(공찰 주지로 떠남)

1899-104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부시외버스 정류장 부근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영단 소불 냉,난방
- 조명 음향 시설 등 완벽 약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안내 방문 후 조정 가능

H·P 010-2500-151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5〉 몸이 마음을 치료한다: 웰빙행동기법〈끝〉

"맛난 것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몸 움직이면 기분도 UP

행동변화는 우리 내면 환경과 외부 환경 모두에 변화를 일으키고 외부 환경의 변화는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변화란 동기와 인지의 변화를 뜻하며 정서가 바로 동기 상태의 반영이므로 정서의 변화도 내포한다.

몸에 변화를 주고 환경에 변화를 주는 행동 선택을 통해 동기와 인지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웰빙행동기법을 들 수 있다. 웰빙행동기법은 웰빙행동의 목록에 있는 웰빙행동을 실천했을 때 웰빙 상태(동기충족 혹은 동기충족예상)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수영하기, 강변길 걷기, 쇼핑하기, 영화 관람하기 등)로 정의된다. 웰빙행동 목록은 앞에서 다룬 웰빙인지 목록과 함께 웰빙 목록을 구성한다.

최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긍정심리중재법의 감사 표현하기, 친절행동 실천하기, 음미하기 등은 웰빙행동기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등의 긍정적 행위는 웰빙을 증진하며, 웰빙의 증진은 심리장애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늘릴 수 있다.

스트레스가 강하게 경험될 때, 즉 부정정서가 강할 때는 동기-인지 분석이나 ABCDE 기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나-지-사 기법이나 웰빙인지기법의 적용도 머리로는 되는 것 같아도 실제 정서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웰빙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웰빙행동 목록에서 적절한 웰빙행동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우선 부정적인 인지나 정서의 반추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웰빙행동의 실천을 통해 긍정정서가 증가하면 상황의 재해석이 쉬워져 웰빙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이 바뀌면 정서와 생각이 변화한다.

웰빙행동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웰빙행동을 많이 할수록 웰빙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서울에 소재하는 두 곳의 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정호(2000)의 웰빙행동 목록을 참고해서 만든 웰빙행동 질문지를 통해 평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웰빙행동을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웰빙행동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 삶의 만족예상, 긍정정서, 자존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우울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일상에서 웰빙행동을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실제로 직접 해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체험을 했다.

"취업을 위해 면접시험을 보았는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면접을 마쳐서 기분이 침울해졌다. 앞으로 남은 면접도 잘못 볼 것 같고 이러다가 영영 백수로 지낼 것 같았다.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웰빙 목록 가운데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항목이 떠올랐다. 혼자 노래방에 간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당시의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어 트러블만 일으킬 것 같았다.

그래서 혼자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 주인아주머니가 혼자 노래방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했는지, '학생, 노래 다 끝나면 얘기해. 내가 시간 더 줄게'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 곡 저 곡 신나게 부르다 보니 기분이 시원해져서 가뿐한 마음으로 집에 올 수 있었다. 다음에 볼 면접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마음도 생기고,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 회사가 손해'라는 호기로운 생각도 들었다."

"남자친구는 직업군인이다. 나는 군대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생활을 이해하기 어렵다. 스트레스의 원인도 서로 달라 공감대도 잘 생기지 않는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다툼과 다툼이 꼬리를 물어 헤어지네 마네 한다. 그럴 때는 나중에 꼭 후회를 한다. 그런 일의 배경에는 오늘 벌어진 일은 오늘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웰빙행동기법을 알게 된 후 부터는 남자친구와 싸우게 되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내 경우에는 음악 듣기)을 하고 나면, '하마터면 상처주는 말을 하고 후회할 뻔했네.' 하는 생각이 든다. 빨리 다툼을 끝낸 건 정말 잘한 일 같다. 자연스럽게 전화나 문자로 혹은 다음날 만나 서로 이해해주는 말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서로의 기분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을 찾아봐야겠다."

음악 · 노래 등 '웰빙' 취미로
강한 부정정서 극복 가능

'기분전환'은 자기하기 나름
다만 '빠져드는 것' 경계해야

일상과 적절히 병행하되
타인에게 피해줘도 안 돼

중독과 이기심을 조심하라

웰빙행동기법을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첫째, 스트레스-웰빙 관리에서 웰빙행동 목록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한다. 웰빙행동기법은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자신의 동기와 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병행하면서 웰빙행동 목록을 사용하면 스트레스-웰빙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둘째, 웰빙행동 목록 가운데 어떤 방법은 정도에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먹기, 게임하기, TV시청하기, 쇼핑하기 등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상의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웰빙 추구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겠다. 자신에게 즐거움이나 평화를 주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로 고속 질주를 한다거나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 있을 뿐

2014년 톰 크루즈가 주연한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일본 작가 사쿠라자카 히로시가 쓴 'All You Need is Kill'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영화에서 주인공 케이지는 '미믹'(소설에서는 '기타이')이라 불리는 외계 종족의 침략에 맞서 싸우게 된 신병이다. 그는 한 전투에서 특수한 미믹의 영향으로 인해 죽지 않고 타임루프를 돌게 된다. 전투에서 싸우다 죽게 되면 다시 작전 투입 전날로 돌아가서 또 전투에 임해야 한다. 처음에 케이지는 끔찍한 죽음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쓴다. 자살을 시도해보지만 다시 타임루프를 타고 전투 전날로 돌아오게 되고, 탈영도 시도하지만 결국 죽게 되어 다시 공포스러운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결국 케이지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완벽한 전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전투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마다 전투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는 기술을 익혀나간다. 소설에는 사무라이들의 '베면서 익힌다'는 표현이 나온다. 실전에서 칼로 적을 베면서 싸움 기술을 익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지는 '베면서'뿐만 아니라 '베이면서'도 익힌다. 이렇게 죽고 살아나고 익히고, 다시 죽고 살아나고 익히고를 되풀이한 끝에, 드디어 케이지는 타임루프의 진원지를 제거함으로써 수없이 반복한 루프로부터 벗어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케이지의 삶과 같을지 모른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고 이 책을 든 독자는 처음에 동기-인지 분석, 마음챙김, ABCDE 기법, 나-지-사 기법, 웰빙인지기법, 웰빙행동기법 등을 생활 속에 열심히 적용하려 애쓸 것이다. 그러다 어느덧 그걸 잊고 특정한 상황만 만나면 비합리적 생각에 빠져 스트레스의 고통을 삼키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우리는 또 잠을 자고 새로운 날을 맞는다. 마치 케이지가 죽음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벰(잘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베임(잘못함)을 통해서도 배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도 학습이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학습이다.

후회나 자책은 금물이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배운 것이다. 실패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실패란 없다. 오직 배움이라는 귀중한 선물만 있을 뿐이다.

이 책의 '생각 바꾸기' 기법들이 늘 순풍에 돛단 듯이 실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용을 잘못하거나 적용 자체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부적절한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배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자.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날, 새로운 만남이 주어진다. 늘 배우며 그 가운데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끝〉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예경/각청) · 제2권(천도/시식) · 제3권(수계/방생)
· 제4권(장의) · 제5권(점안) · 제6권(독송집)
· 제7권(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장엄사)
010-7144-7339(총 무)
010-5277-8024(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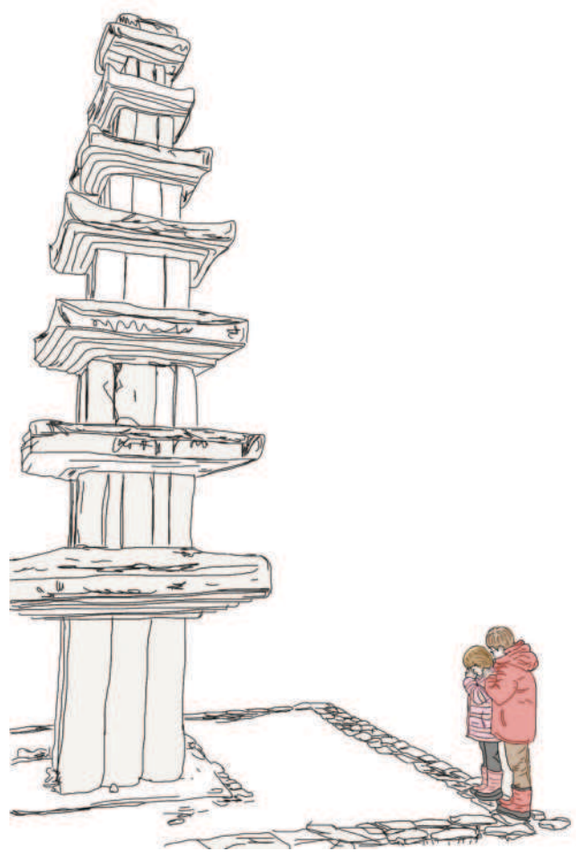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카툰

‘오누이의 원(願)’

한참을 돌로 만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눈을 뜨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오누이가 석탑 아래서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다가 순간 둘은 탑 아래 가지런히 서서 합장했다.

원형다층석탑 아래 가지런히 손을 모은 오누이의 원(願)은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오랜 옛날부터 저 탑은 그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무릎 꿇은 이들의 마음을 받았을까? 그 많은 가슴 속 이야기를 받아들였기에 무수한 시간과 시련을 지내고도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일까?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

“본래 네 마음자리를 찾아라”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몸이 하도 무겁고 괴로워서 밥도 먹지 않고 일찌감치 눈을 붙였다. 한참을 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초저녁이었다. 타고 남은 햇빛이 하늘 가장자리를 붉게 물들이고, 검푸른 하늘에 조각달이 걸렸다.

복슬이가 밥을 먹고 있었다. 두부 쪼가리라도 들어있는지 밥그릇에 아주 코를 박고 있다. 웬일인지 내 밥그릇은 텅 비어 있다.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는 물그릇 위로 달그림자만 어른거렸다. 내가 잠든 사이에 아랫동네 검둥이가 와서 내 밥을 다 먹어버렸나.

고개를 한껏 쳐들고 공양주 보살님이 계신 요사채를 향해 컹컹 짖었다. 공양주 보살님은 신기하게도 내 말을 알아들었다. 배가 고프다고 짖으면 밥을 주고, 목마르다고 짖으면 물을 채워주었다. 낯선 사람이 왔다고 으르렁거리면 쿠사리가 한 됫박 날아왔다. 공양주 보살님은 벌써 잠들었는지 기척이 없었다.

멀리서 시구 스님이 경 읊는 소리가 들렸다. 그 정겨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내 몸은 어느새 스님 앞에 가 있었다. 목줄이 풀린 걸까. 몸이 바람처럼 가볍다. 아파서 늘 들고 있던 뒷다리도 어쩐 일인지 바닥을 힘차게 딛고 있다. 스님 계신 방 앞에 엎드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무상아!’ 하고 다정스레 이름을 불러줄 법도 한데, 한참을 엎드려 있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경만 보고 계셨다. 내리깐 눈매며 꾹 다문 입술에서 슬픈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노스님께 꾸중이라도 들으셨나.

아픈 다리도 나았고 목줄도 풀렸으니 한번 달려나 볼까. 마음을 먹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대웅전을 지나고 지장전을 지나서, 일주문 앞까지 순식간에 다다랐다. 산뜻한 봄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주차장을 지나서 저 아래 광명슈퍼에 이르자 코를 한껏 쳐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검둥이가 보였다.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목줄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 복슬이의 암내를 맡은 게지. 아무리 용을 써 봐라. 복슬이의 신랑이 될 수는 없을 테니. 너 같은 천둥벌거숭이에게 복슬이는 콧방귀도 안 뀔걸. 이죽거리고 약을 올려도 검둥이는 목줄 푸는 일에 집중하느라 내 말을 들은 체도 안 했다. 쳇.

아무리 달려도 숨이 차지 않았다. 다리에는 더욱더 힘이 솟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이런 속도라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자 내 몸이 날아올랐다. 독수리처럼 땅을 차고 올라 바람을 가르며 날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역시 꿈이었구나.

“무상아!”

시구 스님이었다. 스님께 냉큼 달려갔다.

“미명에 휩쓸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본래 네 마음자리를 찾아라.”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고요한데,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뺨 위로 흘렀다. 긴 혓바닥으로 눈물을 핥아주고 싶은데, 내게는 혀가 없었다. 파르르 떨리는 손에 뺨을 부비고 싶은데, 내게는 뺨이 없었다. 몸을 찾아 사방을 둘러봐도 이미 사라진 내 육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림 · 강병호

꿈이 아니었다. 죽음. 10년을 사는 동안 내게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 내게 왔다.

*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주인아저씨가 또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셔서 발광이 나는 게 아니라 발광을 하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 같았다. 아주머니가 또 맞고 있었다. 밥을 차리지 않는다고, 밥을 차렸다고, 말대꾸를 한다고,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한다고, 아저씨는 수없이 많은 이유로 아주머니를 때렸지만, 사실 아주머니가 맞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아저씨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였기 때문이었다.

명진이 형이 뛰어 들어왔다. 출가하기 전의 모습.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언제나 책을 끼고 살던 모범생. 명진이 형이 집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다.

“도망쳐! 엄마! 제발 맞고 있지만 말고 도망을 치라고!”

그 말은 아주머니가 항상 명진이 형에게 하던 말이었다.

“도망쳐! 명진아! 제발 맞고 있지만 말고 도망을 치라고!”

아주머니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도망을 치면 그 폭력이 고스란히 명진이 형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가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쥐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명진이 형이 아주머니를 잡아끌었다. 대문 밖으로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대문을 잠갔다. 아저씨의 손이 명진이 형의 얼굴을 후려쳤다.

아저씨를 향해 사납게 짖었다.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터져 나왔다. 아저씨를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작은 개 한 마리가 달려와 아저씨의 다리를 물었다. 얼굴에 주름이 많고, 공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던 어린 시절의 나였다.

아저씨가 어린 나를 발로 찼다. 어린 나는 깨갱 소리도 못 내고 나가떨어졌다. 명진이 형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명진이 형은 마당에 굴러다니던 야구방망이를 움켜잡았다.

“이제 끝내요. 모두다.”

명진이 형이 야구방망이를 높이 들었다. 작은 개가 멍, 하고 짖었다. 사람의 말로 번역하면 ‘안돼!’였을 것이다.

*

“크나큰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명진이 형이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그 옆에 쭈글쭈글한 작은 개가 엎드려 있었다.

“절을 올려라.”

명진이 형이 노스님께 절을 올렸다.

“누가 나한테 올리라고 하였더냐?”

당황한 명진이 형이 잠시 주춤거리다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노스님은 콧구멍을 후비며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법당에서 나갔다. 그 밤이 다 지나도록 명진이 형은 절을 올렸다. 다음 날 아침, 명진이 형이 기진하여 쓰러지다시피 절을 올리고 있을 때 노스님이 들어오셨다.

“멍청한 놈, 누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라고 하였더냐?”

노스님은 손수 명진이 형의 머리를 깎았다. 그러고는 냄새나는 누더기 한 벌을 던져주며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이 개의 이름을 무상(無常)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네놈은 시구(視狗)라고 한다. 개보다 미욱하니 평생 개만 보고 살 일이다.”

그날부터 명진이 형은 시구 스님이 되었다. 이 절의 스님들은 이 보잘것없는 법명을 놔두고, 개와 함께 출가하였다 하여 시구 스님을 개도반이라고 불렀다.

〈계속〉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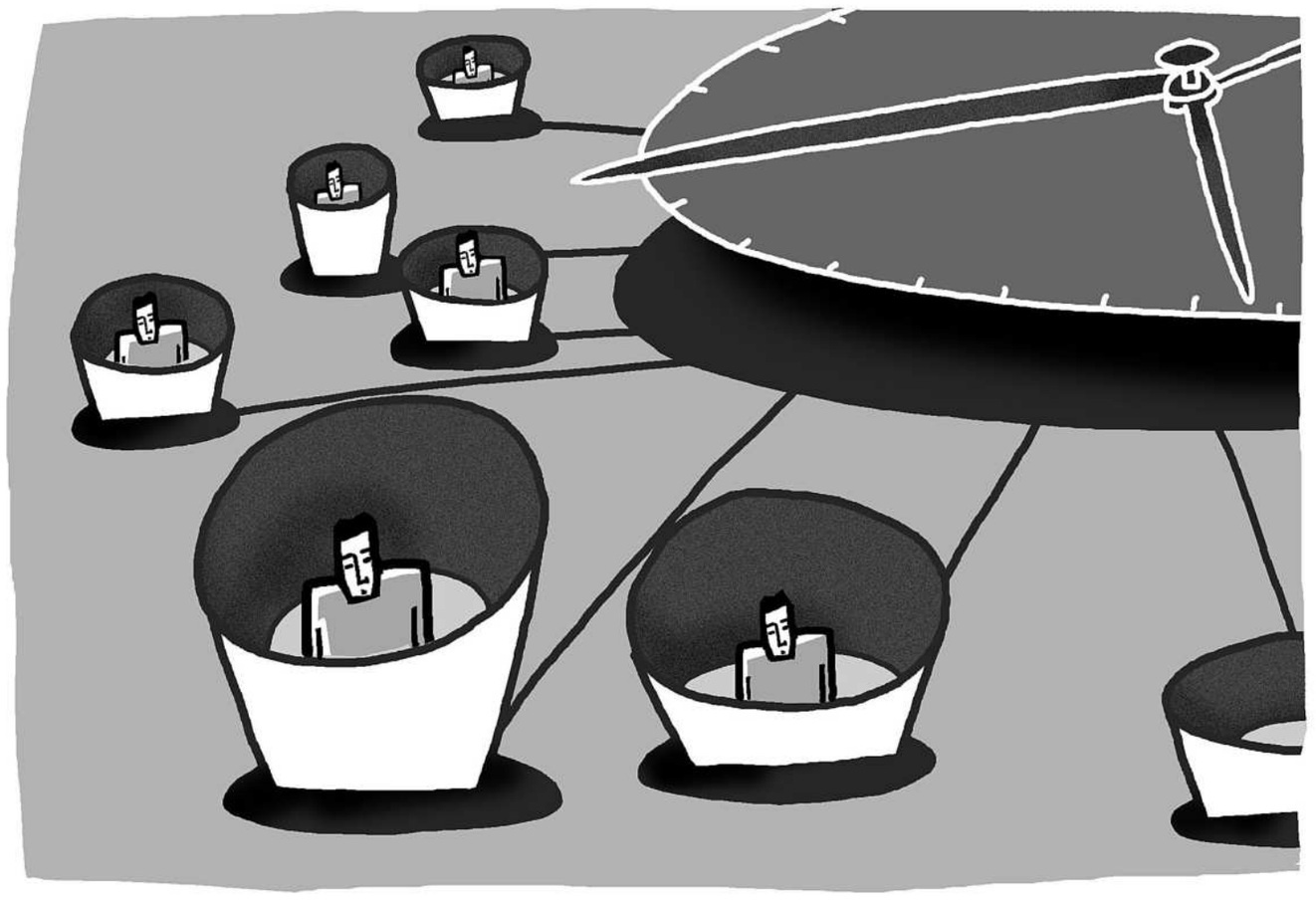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

질문 선법가 "부처님 오신 날도 영원한 오늘일세" 중에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 날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등행진을 하면서 이 선법가를 무심히 따라 부르다가 문뜩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 날일세."라는 말의 뜻이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름아름 느껴지기는 하는데 온전히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날까지 살아왔던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 번 더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그 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 배움의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이 마음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해 놓았겠지만 부처님은 나신 날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자체는 따로 생일도 없고, 따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우주 세계가, 전체를 비춰볼 때 여러분이 만 명이라면 그 만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돼서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죽거리면서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불법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것이 참선이며, 그 경계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일 년에 한 번 오는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항상 여여함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열반에 드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발심이 어찌 바른 깨침인지요

질문 초발심(初發心)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삼보에 귀의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 됐지만 아직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초발심의 경지를 어찌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삼천 년 후나 삼천 년 전이나 그냥 오늘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히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또는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와의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해요. 바깥으로 끄달리고 모든 행도 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지, 초발심이 십 년이 갔든 이십 년이 갔든 하루가 갔든 일 초가 갔든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한 찰나니깐.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동시에 뜻과 더불어 같이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고 놓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 년이 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십 년과 일 초와 맞먹습니다. 그러니 초발심이죠.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뜻하고 모든 것이 결부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컵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 안 돼요. 결부됐으니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거죠. 지수화풍 그 자체가 결부가 됐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즉 바로 흙과 물로 개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굽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한데 결부가 돼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컵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냥 벌로 볼 게 아니죠. 우주의 개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빈 그릇이 나와서만이 다가 아니라 바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어야 이 컵이 컵이라는 빛이 있는 거지, 담아 먹을 수 없다면 아무 뭐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깐 물 담아 먹고 음료수 담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 개공이 이 컵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초발심에 삼천 년이 갔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초발심도 없는 것이고 행한다면 일 초도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편안한 경계에 대해서

질문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걸 놓아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어느새 편안한 경계(境界)를 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놓는 마음 가운데 편안한 경계를 좋아하는 마음이 깃든다면 잘못 가고 있는지요.

답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중생들도 편안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한데 뭉쳐서 놓을 수 있는, 주인공에다 놓을 수 있는 작업이 물러서지 않는 진실이라면 바로 그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깐 편안함이 오고 끄달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우주 천체는 근본 하나로 돌아가지만, 평등하게 돌아가지만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둘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두 일

☞ 18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물러서지 않고 진실하게 믿고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임해서 놨을 때, 그리고 자기한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 모두를 건건이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다가만이 놓을 수 있을 때, 죽고 사는 것을 탓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편안하면서도 그 모두를 커버할 수 있고 자유스러운 대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얘기하던 거와 같이 진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놓고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게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가 된다면 진실하게 구함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는 소식도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편안함, 편안함도 여러 가지겠지마는 그냥 무조건 '옛다, 봐라!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러고 놓는 거는 믿고 놓고 편안한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모두가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진실로 그렇게 감응이 된다면 나 아님이,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그거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니까 그대로 거기에 맡기고 믿고 진실되게 가야 하는데, 믿지 않거나 설 믿는다면, 잘했을 때 '아!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가서 안 되면 아, 이건 또 도루묵이 돼 버려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에요. 그러니 선업 악업을 다 놔라 이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면 높이 놓을 사람은 높이 놓고, 얕게 놓을 사람은 얕게 놔야 일이 되지, 그 작업을 못한대서야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에도 악업 선업을 다 놓고 배워야 돼요. 그거를 비유해서 한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시켜 달라고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들였어요.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극하게 들였어요. 그런데 그만 뒷걸음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는 남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월남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월남에 가서 그만 전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시금 승진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진실히 했는데 후퇴가 됐으니 어떻게 됐겠소? 그 믿음이라는 게 산산조각이 났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니깐 후퇴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악업 선업을 다 놔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는 것인데 어떠한 까닭이냐.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이거죠. 자유인의 대권을 얻었다면, 불리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익하면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익하거나 해롭거나 올려놓을 줄만 안다면 그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수능란한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지휘를 맡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한다는 뜻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모든 거를 이익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만, 얼른 쉽게 말해서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모든 일에 부정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부정으로 가게끔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행해 봐야 '어이쿠!' 하고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올려놓을 줄도 알아야 자유자재의 대권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질문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참선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물론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영역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나 자신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그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저의 그림이 잘 팔리지를 않아서 힘이 듭니다.

답변 어느 시골에서 떠꺼머리 총각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근데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땅에다 항상 그림을 그렸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나절인데 자기가 여자 생각이 나니까 여자를 그려 놓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선 저녁나절에 나왔더니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내가 숯으로 그려 놨는데 이 그림에서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도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그려 놓은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림 그릴 때나 살아나갈 때도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그 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으로 치면 미술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기 시작을 해서 그저 어디고 붓과 먹, 종이만 사 가지고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산하도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다니다가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노인네 한 분이 딸을 잃고 혼자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아 참,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고 그러더랍니다.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은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바로 큰 헝겊에다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집 딸을요. 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딸과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서 그 딸을 착 놓고 보니까 어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 일년에 한 번 오는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려서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떠억 앉혀 놨단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처억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딸이 저녁이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내가 딸을 봤다든가 딸이 이렇게 잘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그림쟁이가 일러 주고는 갔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그 딸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뭐 밥도 해 주고 다 하고 그냥 또 새벽녘이면 거기로 싹 들어가고, 그러면 고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고 유심이라면 무심이니,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린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글이요,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참나 손이 내 손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자기 주인공을 꼭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살 길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질문 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하루하루 큰스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고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경의 내용 중 "눈이 없어 관하고 관하고 또 부지런하오리니 가고 가고 돌아 돌아 모든 고난이 큰 뜻으로 모든 액난이 몰락 사라지이다, 사라지이다." 하는 내용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하나. 이 힘든 길에서 도망갈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현실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언제 그랬나 싶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제가 이 마음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이 내면의 길에서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누구나가 다 그럴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이기에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이 있어요. 형성을 시키는 데는 모든 게 합쳐져야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진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세요.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고 주인공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음을 믿고 맡기세요. 그 자리에 맡겨 놓고 나오는 대로 되맡겨서 일임한다면 참자기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금세 먹는 대로 소화가 잘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을 많이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고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되면 걸림 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다면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50% 물질세계만 알게 되니 그러면 걸려서 못 삽니다. 지금은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 되는 시대죠.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꼭 육으로 잡아먹어야 잡아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대업을 쌓고 내 가정이 부유하여 고생하지도 않는데 뭘 배운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이는 세계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쭉정이를 낳는 벼이삭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실천에 옮길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같은 것이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자리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그 자리 아닌가 하고 되맡기세요.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누가 금방 죽는다고 해도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지만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 뛰죠. 그냥 배 안에 탄 중생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고 말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는 반드시 뒤집히고 말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를 떠나서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과 내 뼈다귀만 알지,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시고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진수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형상은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며, 부처님은 형상으로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알고 난 뒤에는 형상으로 보이는 저 부처님이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증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익을 때까지는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일체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심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해 놓은 것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먹는 반면에 바로 또 자기가 해서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불자 세상보기

옥시 사태로 본 윤리경영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만약 부처님이 '착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번다' 라고만 말씀하셨으면 나는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은 '나쁜 놈들도 돈을 번다' 고 말씀하셨다. 탐욕에 젖어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고 하는 이 세상을 직시하고 계신 것이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했던 옥시도 나쁜 짓으로 돈을 많이 벌다가 들켰다. 제품의 잘못을 알았을 때 즉시 시정을 했어야 하는데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심지어 연구보고서 조작까지 한 아주 못된 기업이다.

기업이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첫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사회전체가 썩어 있는데 기업이 윤리경영을 할리 만무하다. 사회전체가 썩어 있는데 기업에게만 윤리경영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이다. 기업과 사회는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사상으로 본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리적인 것과 기업의 윤리경영은 별개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사회가 윤리적이니 기업이 윤리적이고 기업이 윤리적이니 사회가 윤리적이다.'

둘째 최고책임자가 윤리적인 모범적 행위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연기사상으로 표현하자면 '사장이 윤리적이니 직원이 윤리적이고 직원이 윤리적이니 사장이 윤리적이다.' 사장이 윤리적이라고 직원이 저절로 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장의 모범은 윤리경영의 필요조건이다.

윤리경영을 위해 눈앞의 전시효과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우리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더라도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근거하여 지혜로운 처방을 추구해야 한다. 길게 보아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분노의 대상이 '옥시' 를 넘어 좀 더 넓혀져야 한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애경,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을 제외하고 '옥시'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초점을 '옥시' 에서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다른 대기업으로 넓혀야 하고 다시 초점을 기업전체의 윤리경영에서 사회전체의 윤리로 넓혀야 한다.

사회전체의 윤리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결국 아무 노력도 안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지 몇 십 년이 되었는지 한 번 살펴볼 일이다. 매번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전체의 윤리를 다시 되짚어본다면 세상은 확실히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인과연으로 얽혀 있어서 한두가지 처방으로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옥시' 의 행태도 불교적 관점에서 한 번 풀어보자. 세상이 문제고 리더가 문제다. 결국 윤리경영은 정치문제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회전체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리더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윤리경영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놀랍게도 부처님이 출가자의 윤리를 위해 교단을 운영하신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출가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부처님은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셨다. 경전에는 깨달은 수행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깨달은 출가자도 모두 예외없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부처님은 윤리규정을 제정한 뒤에 교육을 시켰고 감시와 처벌을 중시했다. 사장부터 끊임없는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사회체계와 처벌이 참으로 중요하다. 부처님은 출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한 뒤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보완했다.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윤리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미 지킬 수 없는 규정을 고루하게 요구하다보면 사회가 이중적이 되고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보아 타당한 윤리를 정착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사회전체의 윤리수준이 올라간다. 사회전체의 윤리와 기업의 윤리경영은 별개가 아니고 연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인 것이다.

기자 칼럼

'연등회 글로벌화 되려면'



노덕현
취재부 기자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7~8일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종로와 광화문 등 서울 일대에는 연등회가 펼쳐졌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연등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된 분위기가 일소되고, 5월 초순의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돼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3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불자들이 이번 연등회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그동안 제등행렬 관람이나 연등 만들기 체험 등 일부 행사 참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등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초청행사 등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협조와 지원이 있었다. 연등회보존회는 예년의 40개국 보다 9개국이 더 늘어난 49개국에서 온 75명의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 7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들은 7일 동국대 운동장에서의 연희단 율동을 비롯해 플래시몹, SNS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사전 홍보도 진행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불교 뿐만아니라 태국 스리랑카 네팔 몽골 미얀마 등 세계 각국 대표단도 참여해 연등회를 보다 풍성하게 했다. 제등행렬에 다양한 등을 제작하고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참여한 모습에서 연등회가 글로벌 문화축제로 거듭났음을 느끼게 했다. 이어 8일 인사동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린 문화마당에서도 국제불교코너가 인기를 끌었다. 태국불교 대표단의 무에타이 시범과 네팔과 티벳 스님들의 만다라 시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가장 먼저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전문적인 안내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었다. 탑골공원에 위치한 연등회 중앙행사장을 제외하고는 장엄등과 연등을 설명하는 안내가 없었다. 중앙행사장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이유도 영문해설을 듣기 위해서기 때문으로 보였다. 연등회 자체 평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장엄등에 영문 안내와 안내 방송 등을 행진 구간 곳곳에서 틀어준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연등회를 즐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인사들이 연등회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이번 연등회에는 세계미인대회 중 하나인 '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 참가자들이 직접 등을 만들어 들고 참가했다. 미녀들의 행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불자로 유명한 배우들이나 국내 KPOP 스타들도 함께 연등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더욱 이들의 모습에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서포터즈와 별개로 유명인사를 연등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끝으로 연등회 회향한마당에서는 흥겨운 춤사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노래는 올해도 2012년 나온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었다. 물론 싸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수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 되어가는 연등회임을 고려해 적어도 회향한마당에서는 현대화된 찬불가와 함께 최신 가요와 팝 등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연등회에는 해가 갈수록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장엄등과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행렬 동참자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불교국가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제등행렬이 있지만, 우리처럼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고 다양한 장엄등이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세계인들의 어울림한마당으로 연등회를 만들기 위해 불교계 안팎의 총지를 모을 때다.

社說

이웃종교의 훈훈한 화합 메시지

5월 14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광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 나투신 불기 2560년이다. 올해의 봉축 표어는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이다.

그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서원한 만큼 이웃종교에서도 예년보다 더 많이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불자들에게 전해 훈훈함을 주었다. 로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루이토랑 추기경)는 "부처님오신날은 붓다의 탄생과 대각, 입멸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과 국가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길 빈다"고 기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져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원한다"며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자비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울려 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서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밝히셨다"며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시기다.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아픔 속에 처한 이웃을 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희 천도교 교령도 "예부터 불국토를 자부해온 우리나라의 만사, 만물, 만인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선한 용기와 은혜로운 자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 · 종파를 떠나 부처님오신날 만큼은 모든 종교인들이 평화와 상생이 가득하기를 바랬다.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갖는다면 종교인 사이에 불화는 물론 사회 갈등의 싹을 처음부터 자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인부터 열린 마음이 요청된다. 나와 내 형제만이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일 것이다.

서울시, 무분별한 강남 개발 안된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를 개발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 일명 '한국판 라데팡스' 설립을 추진한다. 시민의 편리성과 한류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봉은사를 비롯한 강남 일대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묶여 있다. 우선적으로 조계종과 봉은사가 주장하는 한전부지 반환 문제다. 박정희 정권으로 인해 강압적으로 추진된 봉은사 토지 매입으로 불교는 많은 재산을 망실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을 개발하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이 5월 9일 질의한 것처럼 서울시의 개발 사업은 역사 ·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것은 물론 안전성도 물음표를 찍을 수 밖에 없다.

법응 스님은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에서 △철학과 테마가 부재 △현대차 GBC에 지나친 배려 △지질 등 건조물의 안전 △역사와 인문 가치 부재 △교통안 증대, 미래성 부재로 원점서 재검토 필요 등 5개항의 문제를 질의했다.

또한, 스님에 따르면 강북과 달리 강남의 지하 기반암은 '연암(Soft Rock)' 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뤄진 강남 개발에서도 대규모의 매립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하 6층 구조의 세계 유례없는 환승센터 개발은 여러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서울시가 강남 지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한류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문 · 역사가 가미돼야 한다. 졸속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불교계의 '고언(苦言)' 을 서울시가 경청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집게형태 〈앞면〉 진분홍 〈뒷면〉 연분홍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cm×21cm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cm)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cm)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cm)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cm)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뮤직에세이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효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사연접수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

skylife 171번 KT olleh 233번 SK Btv 555번 LG U+TV 185번 ▮케이블채널안내 | 02.3270.3300 ▮방송포교후원ARS | 060.800.7000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BORYEON 덕분입니다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5381-9335,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성지순례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마하연투어만의 특전
1.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2.오랜경험으로 현지불교행사 진행
3.호텔-행사-식사(타사비교 필수)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따야
미얀마 7일 (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일 [양곤-바간-헤호]



남방불교의 진수 인도/스리랑카
하늘과 맞닿은 불교성지 티벳/부탄/네팔



KOREAN AIR
부탄순례지 NO경유! 인천->네팔,부탄

인도 11일 (8대성지)
스리랑카 6일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인도/네팔 15일

티벳(하늘열차) 8일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오명불학원-야칭스-깐딩
티벳6일
성도-라싸-암드록쵸-간체-시가체
부탄/네팔 8일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 순례지

대만/라오스/베트남 캄보디아

대만5일 대만3대 사찰순례
대만/홍콩5일 홍콩(2)-대만(2)-화련
태국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6일
하롱베이-루앙프라방

베트남/캄보디아6일 하롱베이-씨엠립



4대불산 중국[China]
990,000원부터~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6일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곡부/태산6일(훼리크루즈)